

"위기를 넘어
희망으로!"



- 목 차 -

I 부. 개신교와 로마가톨릭의 분명한 차이점	3
1. 신학과 교리적인 분명한 차이점	5
2. 교회의 역사에서 보는 가톨릭의 문제점	7
3. 유럽에서 본 가톨릭의 모습들	14
II부. 로마가톨릭의 위기	17
1. 교황 방한을 보는 시각들	17
2. 가톨릭과 종교개혁	19
3. 한국 개신교와 가톨릭	24
4. 가톨릭 위기와 프란치스코	28
5. 루터로 돌아가자	30
6. 신학자들이 보는 가톨릭과 개신교의 비교 요약	34
III부. 한국교회의 문제점	39
1. 한국교회 연합기관의 분열	39
① 부끄러운 분열의 현주소	39
② 한기총, 어떻게 분열됐나	43
③ 연합기관 재통합 왜 안 되나	46
2. 교단과 노회의 분열	49
① 분열 또 분열	49
② 왜 분열되나	53
3. 분열 극복과 통합의 길	57
① 연합기구 통합하려면	57
② 다양한 통합안들	61
③ 액션플랜이 필요하다	64
IV부. 위기를 넘어 희망의 길을 찾자.	67
부록. 카톨릭과 바람난 한국교회	

신앙과 지식 사이

지식(知識)이
결여된 선(善)함은
약(弱)하고

착함이
결여된 지식(知識)은
악(惡)하다

지식이
결여된 신앙(信仰)은
천박하고

신앙이
결여된 지식은
마귀적이고, 파괴적이다

신앙에는
진리(眞理)에 대한 앎과 깨달음
선한 행동이 조화(調和)를 이뤄야 한다.

선과 악 사이에서

행함이 없이
깨달음에 머물면
죽은 신앙(信仰)이다.

행함이 없는
양심(良心)은
악의 편에 서 있는 것이다.

‘진리(眞理)는 땅에서
쫓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시85:11).

믿음의 사람은
행동하고
막힌 담을 향해서라도
사랑과 공의(公義)를 외쳐야 한다.

I. 개신교와 로마가톨릭의 분명한 차이점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 사이에는 중대한 차이점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다. 신학적인 차이 제도적 차이 뿐만 아니라 교회적 차이도 너무 크게 벌어져 있다.

겸손과 봉사를 강조해온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은 세상에서 교회의 역할과 의미를 묻는 한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개신교에는 영적인 허약함을 가지고 있어서 교황의 방한과 함께 개신교에서 가톨릭교회에 입문하는 이들이 늘어날 것이고, 반면 가톨릭과 개신교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궁금해 하는 일반인들과 성도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러나 로마가톨릭이 걸어온 종교다원주의와 혼합주의는 경계해야 하고 복음의 순수성이 일탈되고 있음도 알아야 한다.

왜? 로마 가톨릭은 유럽전에서 교황을 선출하던 관례에서 벗어나 비유럽전 남미라는 변방에서 교황을 선택했을까?

유업의 퇴폐와 뒤흔들린 가톨릭을 위한 다급한 극약처방이라고 많은 개신교 신학자들이 보고 있다.

권위적인 요소를 과감히 벗겨내고 공의와 사랑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여 주고, 겸손하고, 소탈한 삶의 모습을 실천하고 있다는 면을 홍보하고 있다.

특히 교황의 방문기간에 한국의 순교자 124위에 대한 시복식을 집접한다. 순교를 무릎 꿇던 초기 한국 교회신앙의 뜨거움과 간절함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홍보 전략을 짜고 있다.

로마 가톨릭은 성경말씀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을까?
종교개혁 이전과 이후 그 교회는 어떻게 변했을까?

교황이 낮은 자를 섬기고, 공의를 외친다 해도 옛날 공자와 맹자 그리고 작금의 달라이라마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

복음을 통한 구원의 선포와 사죄를 통한 영적 치유와 성령을 의지하는 사랑의 삶이 본질적인 개신교의 메시지이다.

지상에서 조금 착하게 사는 것보다 죄의 얼룩이 묻어도 보혈의 십자가를 붙잡고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

이것이 복음의 가르침이다.

물론 작금의 가톨릭은 아동성추행의 문제와 바티칸 은행 비리문제, 마피아 연루설 등 시급한 과제들과 씨름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현직 교황이 보여주는 개방적인 태도와 솔직함, 순수한 열정은 기꺼이 주목받을 만하다.

그러나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개신교와 가톨릭의 신학적 차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이 책을 편집하는 핵심의 이유도 그와 같은 이유에서다.

1. 신학과 교리적인 분명한 차이점

① 성경 (계시) 관의 차이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개신교는 ‘오직 성경만이 권위로 인정한다.’ 그러나 가톨릭은 ‘교회전통을 성경의 권위와 일직선상에 놓고 있다.’ 곧 성경과 함께 교회 전통이 신자의 삶과 신앙을 구속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톨릭의 계시관은 자칫 교회 전통의 가르침에 의해서 성경의 권위가 무시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개신교는 신구약 성경 66권만을 성경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가톨릭은 66권외에도 ‘유딧기’, ‘마카베오상하’ 등등의 외경도 사용하고 있다.

② 구원관의 차이

개신교 구원론의 핵심은 ‘이신칭의(以信稱義)’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외롭다는 칭함을 받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 가톨릭은 성례를 통한 구원을 가르친다. 세례를 통해서 의롭게 되고, 원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고 있다.

개신교는 성탄을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희생과 사랑의 섬김을 되새기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가톨릭은 제사 즉 미사로 보고 이를 통해서 죄가 사해진다고 믿는 것에 차이점이 있다.

③ 가장 심각한 차이점은 교황무오설이다.

개신교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인정할 수도 없는 부분이다. 가톨릭의 경우 로마 교황을 사도 베드로의 사도권을 계승한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인정하고 있다.

가톨릭은 특히 제1 바티칸 공의회 (1869-1870)때 신앙과 도덕에 관한 교리결정에 있어서 ‘교황의 무오(오류가 없음)’를 공식적으로 선포했다.

이는 인간으로써 교황에게 오류나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교황이 교리나 도덕에 관한 선포한 칙령에 오류가 없다는 의미이다. 교황은 신의 대리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의 깊은 의미는 연세대학교 김균진 교수의 말대로 “교황의 교리결정에 오류가 없다면 교리는 영원불변하면서 절대적인 교회의 전통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훼손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④ 마리아 숭배

가톨릭은 인간 어머니인 마리아를 ‘성모’ 즉, ‘주님의 어머니’로 정의한다. 이것은 마리아를 ‘중보자’로 인정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마리아를 통해서 올 뿐만 아니라, 마리아를 통해 기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개신교는 삼위일체론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교리를 성경대로 받아들이지만 가톨릭이 주장하는 마리아교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인간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규정하고 있다.

⑤ 연옥설 교리

작은 죄를 지은 영혼은 연옥에서 죄를 씻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고해성사’만 하면 용서 받을 수 있다는 가톨릭의 교리도 개신교는 인정하지 않는다.

개신교는 ‘믿음’을 통한 구원을 강조하고 가톨릭은 ‘성례’를 통한 구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신학, 교리적 쟁점>

개신교	구분	가톨릭
‘오직성령’의 권위만 인정	성경관	교회전통을 성경과 같은 권위로 인정
‘이신칭의’에 따른 구원만 인정	구원관	성례를 통한 구원과 고해성사 통한 면죄 주장
오직 하나님의 권위만 인정	교황권 및 교황무오설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며 교리에 관한 교황의 발표는 오류가 없다고 주장
우상숭배로 간주	마리아숭배	마리아를 중보자로 인정
인정치 않음	연옥설	작은 죄를 지은 영혼은 연옥에서 죄를 씻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주장

2. 교회의 역사에서 보는 가톨릭의 문제점

종교의 본질은 기득권안주나 옹호에 있지 않고 끊임없는 용서와 화해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지속적인 성찰에 있다. 이는 개신교나 가톨릭 모두에게 해당되는 질문이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다는 신앙 혹은 진리에 대한 지나친 확신이 오히려 분열을 거듭해 왔고, 반신앙적, 반진리적 모습으로 나타나 해악을 끼치는 경우를 역사 속에서 수없이 목격했다. 그러므로 지식이 없는 신앙은 천박하고, 신앙이 없는 지식은 악마적일 수밖에 없다. 교회의 역사를 잘 알아야 하는 이유가 그것이다.

로마가톨릭이 이처럼 교황에 초점을 맞추어 로마가톨릭의 절대 우월성을 새삼스럽게 주장한 동기가, 당시 서구 언론 일각에서 추측했듯이 로마가톨릭 내부 문제의 진화, 즉 이미 고령에 심한 파킨슨 병으로 시달리는 교황 바오로 2세의 건강 악화로 인한 로마가톨릭 미래의 불확실성, 그리고 로마가톨릭교회의 향후 진로와 관련된 보수파와 진보파 사이의 검증하는 갈등을 불식시키기 위함이었는지는 전혀 알 길이 없다. 당시 나는 제네바한인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교황청의 이 교서는 유럽 개신교회의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얼마 지나지 않아 로마 교황청은 진의가 잘못 전해졌다고 한발 물러서긴 했지만, 문제의 그 교서로 교황청이 대내외적으로 심어 주려 했던 것은 교황의 절대성이었다.

로마가톨릭은 1869년 제1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교황무오성을 공식적으로 결의, 채택하였다. 무오성(無誤性, infallibility)이란 결코 오류를 범할 수 없는 성품을 일컫는데, 로마가톨릭이 교황무오성을 결의한 것은 교황에게 신적 권위를 부여하기 위함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교황을 통해 직접 교회를 통치하시므로, 교황의 결정이나 가르침에는 어떤 오류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교황의 결정이나 가르침은 언제나 옳을 수밖에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결정이요, 하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개신교회를 태동시킨 종교개혁은 결과적으로는 구체제를 끌어버리는 혁명이 아니라, 로마가톨릭교회가 성경에서 벗어난 부분들을 성경 말씀에 따라 바로 세우는 문자 그대로의 개혁으로 귀결되었다. 따라서 개신교회는 로마가톨릭의 장점을 배우고 본받는 데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 2000년의 역사를 지닌 로마가톨릭교회는 이제 겨우 500년에 지나지 않는 개신교회의 뿌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개신교인이 수용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은, 교황을 하나님처럼 절대시하는 교황수위권, 교황무오성 같은 교리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인간의 전적 타락을 증거 하는 성경 말씀은 차치해 두고서라도, 인간은 우리가 이미 인간인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우리의 성정은 얼마나 추하고 흉측한지,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미숙한 존재인지를 말이다. 그때 그것이 분명 옳다고 나의 모든 것을 걸고 확신했건만, 세월이 지나고 보니 전혀 그게 아니었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가? 그럼에도 만약 누군가가 한평생 무엇을 결정하든 항상 옳을 뿐만 아니라 그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언제나 일치하며, 하나님께서 유독 그 한 사람만을 통해 전 세계의 교회를 위한 당신의 뜻을 밝히신다면 그가 어찌 사람일 수 있겠는가? 그가 곧 하나님이 아니겠는가?

1095년 교황 우르바누스 2세는 이슬람 지배하의 예루살렘을 탈환한다는 명분으로 십자군을 모집, 제1차 십자군전쟁을 일으켰다. 1097년, 현재 터키의 이스탄불인 당시 콘스탄티노플을 출발한 십자군은 1098년, 난공불락의 요새로 알려져 있던 안디옥을 점령했다. 7만 명에 달하는 십자군은 여세를 몰아 1099년 7월 15일 예루살렘을 함락, 그곳에 살고 있던 이슬람교도와 유대인들을 학살했다. 그 학살이 얼마나 잔인했었는지는 다음과 같은 십자군의 기록이 밝혀 주고 있다.

솔로몬 성전 입구를 지날 때 우리는 말을 탄 채 무릎 높이까지 올라온 피의 강을 지나갔다. 성전은 오랫동안 이단자들로부터 불경스러운 모독을 당해 왔으니 바로 그 장소를 이단자들의 피로 가득 채운 것은 하느님의 훌륭한 심판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12세기에 접어들며 이슬람의 통치자 장기와 살라딘에 십자군이 연이어 패퇴한 것과 궤를 맞추어 교황 유니게우스 3세, 그레고리우스 8세, 인노케티우스 3세는 계속하여 십자군을 모집, 전쟁을 계속하였다. 십자군전쟁의 정점에는 항상 교황이 자리 잡고 있었다. 심지어 나이 어린 소년까지 동원된 십자군전쟁은 1270년이 되어서야 십자군의 포기로 끝이 났다. 십자군 전쟁이 시작된 지 무려 275년 만이었다. 그 기간 동안 피아간(彼我間)에 얼마나 엄청난 인명 피해가 났을 것인지는 새삼스럽게 언급할 필요도 없다.

그로부터 정확하게 730년 후인 2000년 3월 12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사죄의 날’ 미사를 집전하면서, ‘회상과 화해-교회와 과오’라는 제목의 참회서를 공표했다.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아 지난 2000년간 로마가톨릭교회의 죄상을 고백하고 사죄를 구하면서, 교황은 십자군 전쟁을 대표적 범죄로 적시했다.

십자군 원정은 인류를 피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성지 회복이란 숭고한 목적의 이면에는 너무나 불손한 의도가 숨어 있었다. 유럽인의 아픔이 이슬람보다 클 수는 없다.

십자군 전쟁에 대한 지난 교황들의 과오를 현재의 교황이 인정하고 사죄한 것이다.

태양이 지구를 돈다는 천동설에 반하여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며 자전한다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주장한 갈릴레오 갈릴레이를 종교재판에 회보, 1633년 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게 한 사람은

교황 우르바누스 8세다. 갈릴레이로부터 자신의 지동설을 ‘맹세코 포기하며, 저주하고 혐오한다’는 선언을 받아낸 사람도, 이미 69세의 고령이었던 그를 죽을 때까지 피렌체의 자택에 연금시킨 사람도 동일한 교황이다. 지난 1992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로마가톨릭 교회가 갈릴레이를 이단자로 재판한 것은 잘못이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갈릴레이를 파문한 지 359년 만의 일이었다. 그 역시 교황의 잘못에 대한 교황의 사과였다.

위에 언급한 십자군과 갈릴레이의 예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과거에 교황들이 범한 과오에 대한 현 교황의 사과가 아니더라도, 교황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잘못이 자행되었는지는 이미 2000년에 걸친 교회의 역사가 밝혀주고 있다. 그럼에도 교황을 신성시하는 교황무오성은 내부적으로 전혀 위협받지 않고 있다. 역사에 드러난 가톨릭교회의 과오와 교황무오성은 무관하다는 것이 로마가톨릭의 입장이다. 로마가톨릭교회에서 교황의 존재는 그만큼 절대적이다. 교황의 절대성이 배제된다면, 교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상의 교회를 직접 통솔하신다는 로마가톨릭은 존립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성경에도 없는 교황을 정점으로 하는 가톨릭의 조직논리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에 둔 로마가톨릭교회에 의해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왜곡되었겠는가? 이것은 단지 로마가톨릭교회를 비판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지상의 교회들 중 최고(最古)의 역사와 최대의 조직 및 제도를 지닌 로마가톨릭을 통해 우리 자신과 교회의 실상을 직시하기 위함이다.

1054년 동유럽과 중동 중심의 동방정교회가 로마가톨릭교회로부터 분리되었다. 드러난 이유는 교리와 성상숭배에 대한 양 진영 간의

이견이었지만, 실제로는 로마가톨릭교회의 수장(교황)이 로마제국 내 모든 교회에 대해 행사하는 지배권에 대한 반발이었다.

주후 324년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는 로마제국의 수도를 제국의 동쪽에 위치한 콘스탄티노플로 천도하였다. 그로 인해 330년 경부터 콘스탄티노플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명실 공히 로마 제국의 중심이 되었다. 로마제국의 추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한 것이다.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였다. 예루살렘, 콘스탄티노플,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등 주요 교구는 모두 동쪽에 위치해 있었고, 자연히 교인 수도 많았다. 395년에 이르자 로마제국은 서로마제국과 동로마 제국으로 제국 자체가 분리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서로마제국은 476년 멸망하고 말았다. 동로마제국의 관점에서 보면 로마제국의 정통성은 동로마제국에 있는 셈이었다. 그럼에도 로마가톨릭교회의 교황은 동로마제국의 모든 교회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였고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동방교회는 마침내 1054년 로마가톨릭 교회와 공식적으로 결별하였다.

동서 교회 분열의 내면적 이유가 로마가톨릭교회 교황의 절대적 지위에 대한 동방의 반발에 있었으므로, 분리되어 나간 동방교회는 로마가톨릭과 같은 피라미드 형태의 1인 지배 조직을 거부하였다. 동방교회 전체를 상징하는 총대주교를 두긴 하였지만, 신적인 존재인 교황과 달리 상징적인 자리에 불과했다. 그 대신 각 지역의 특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살려 지역마다 대주교를 두어 교회를 총괄하게 했다. 지역마다 독립교회 형태를 이룬 것이다. 여기에서 지역이란 단순히 지리적 구분이 아니라 로마제국에 정복당한 민족 및 나라였다. 말하자면 동방정교회는 태동될 때부터 동로마제국이란 큰 틀 속에서 민족별로 독립 교회의 형태로 시작된 셈이다. 이런 연유로 인해 동방정교회는 동로마제국의 멸망과 이슬람왕조인 오스만제국의 지배,

개별 국가로의 독립,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 공산 지배로 이어지는 역사의 격랑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민족 교회 혹은 국가 교회로 굳어졌다. 교회의 최고 가치가 민족 혹은 국가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나라마다 자기 민족, 자기 국가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교회가 과연 우주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지킬 수 있겠는가? 그들이 지키려는 가치와 제도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도 모르게 왜곡되지는 않겠는가?

1517년 10월 31일, 신부였던 마르틴 루터는 로마가톨릭교회의 면죄부 판매에 대한 학문적인 토론을 목적으로, 당시 비텐베르크 대학 게시판이기도 했던 비텐베르크 만인성자교회의 문에 <95개 조항의 논제>를 게시했다. 그것이 세계 역사의 흐름을 뒤바꾸어 놓은 종교개혁의 시발이요, 교황을 정점으로 하는 로마가톨릭 체제를 탈피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개신교회의 출발점이었다. 마르틴 루터에 의해 독일 비텐베르크에서 시작된 개혁의 열풍은 유럽대륙으로 요원의 불길처럼 퍼져 나갔다. 그러나 개혁을 선도하는 지도자들의 신앙과 성경에 대한 의식 및 사고가 동일한 것은 아니었다. 그 차이는 자연히 개혁의 본질과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종교개혁의 막후 공헌자였던 헤센 지방의 영주 필리프 백작의 주선으로 1529년 10월 1일 마르부르크 회담이 열렸다. 독일 지역을 대표하여 마르틴 루터와 멜란히톤, 스위스 지역을 대표한 츠빙글리와 외콜람파디우스를 포함한 주요 지도자들이 모였다. 상호간 이견의 해소를 통해, 개혁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세속 왕권의 군대를 동원한 로마가톨릭에 효율적으로 맞설 수 있는 프로테스탄트연합체를 결성하기 위함이었다.

15개 조항 중 복음주의 대강(大綱)과 관련된 14개 조항에는 의견이 일치되었지만, 마지막 조항의 마지막 부분인 성찬식에 관해서는 끝내 합의를 보지 못한 채 회담은 결렬, 프로테스탄트연합체 결성은 무산되고 말았다.

개혁자들 간의 의견 불일치는 결국 개신교가 처음부터 끝없는 교파 분열로 치닫는 단서를 제공하고 말았다. 만약 1529년의 마르부르크 회담에서 당시 유럽 교회 개혁의 쌍벽을 이루던 독일 세력과 스위스 세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를 이루었던들, 그로부터 6년 후인 1535년 26세의 약관에 《기독교강요》 초판을 저술하고 1541년부터 제네바에서 본격적인 종교개혁으로 세계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칼뱅이 독자 노선을 추구하지 않았을는지도 모른다. 또한 1534년 영국 왕 헨리 8세가 자신의 이혼 및 재혼을 반대하는 로마 가톨릭과 결별, 새로이 태동되는 영국국교회(성공회) 역시 유럽 대륙과 다른 형태로 발전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3. 유럽에서 본 가톨릭의 모습들

유럽을 여행하다보면 아주 큰 성당들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런데 그 웅장한 성당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 소위 그들이 성자라고 말한 사람들의 상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베드로 성당에 가보면 그 성당 제일 중앙의 가장 귀한 자리에는 소위 베드로의 시체가 있다고 하는 판이 놓여 있다. 그리고 양 옆으로는 베드로 성당을 지었던 교황들의 판이 있다. 어떤 교황의 시체는 완전히 금으로 입혀져 있기도 하다. 이 성당은 주님을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지은 것이다.

프랑스에 가면 몽마르뜨 언덕에 성심 성당이 있다. 지극히 아름다운 성당이다. 그런데 그 성당을 지을 때 프랑스가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참패를 당한 뒤였다. 그로 인해 전 국민들이 사기를 잃었을 때에 그들의 사기를 높여 주기 위해서 그 성당을 지었다. 즉 주님이 목적이 아니라 민족적인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지은 것이다. 그래서 그 성당입구에는 잔 다크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 그들이 민족적인 영웅으로 추앙하는 잔 다크를 앞세워 국민들의 사기를 고양시켰던 것이다. 그런가하면 앵발리드 성당은 분명히 성당임에도 불구하고, 나폴레옹 묘지로 꾸며져 있다. 모두 대단한 성당들이지만 가는 곳마다 죽은 사람들만 보이고 살아계신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

한국교회는 어떤가? 사람의 이름을 높여 주면 더 많은 헌금을 모을 수 있을는지 모른다. 계속 사람들을 칭찬하고, 사람들을 높이고, 드러내고, 경쟁을 시키면 더 성전이 커지고, 부유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 신자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저의 친구 목사의 경험을 소개한다.

일주일에 두 번씩 만나 프랑스어 회화를 돕고 있는 부인은 내가 목사인 것을 알자, 스스로 가톨릭 신자라고 밝혔다. 그래서 내가 물었다. “성당에 다니십니까?” “결혼식 이후에는 가 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당신은 가톨릭 신자를 어떻게 정의하길래 스스로 가톨릭 신자라고 합니까?” 그 부인 역시 얼른 대답하지 못했다. 그러더니 한참 생각한 끝에 다음과 같이 말을 하는 것이었다. “태어날 때부터 나는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부모님을 따라서 영세를 받았습시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모든 사람이 가톨릭 신자라고 말하기 때문에 나는 가톨릭 신자인 것입니다.” 이 부인의 말이 맞는가? 그렇지 않다.

스위스 사람은 대단히 정직하다. 신문 판매대에 사람이 없다. 그냥 동전을 넣고 가져간다. 앞서 말한 것처럼, 버스나 전철을 탈 때에도 확인하는 절차가 없다. 그들은 인권을 존중하며, 한국 고아들을 천명이나 입양했을 정도로 사람을 사랑한다. 그들은 영성은 없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정직하고, 훨씬 더 사랑을 행하며, 훨씬 더 봉사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나 정직을 가장 강조하는 스위스의 은행에는 세계의 모든 불법적인 돈이 다 들어와 있다. 그리고 그 돈에 대해서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갖지 않는다. 또한 그들은 어느 나라 민족보다도 자연을 보호하고 깨끗한 산하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면서도 온 도시를 개똥으로 더럽힌다. 개를 데리고 나왔다가 개가 똥을 싸면 주인이 비닐로 싸서 들고 가서 버리라고 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지만, 그 법을 지키는 스위스 국민은 없다. 법을 강조하는 그들이 횡단 보도의 신호등을 지키지 않는다. 사랑을 이야기하는 그들이 같이 사는 아파트에 파키스탄 사람이 카레 냄새를 피운다고 주저 없이 쫓아낸다. 밤 9시나 10시 이후에 아파트에서 큰 소리를 내는 사람은 즉각 경찰에 고발한다. 그래서 내가 사는 아파트는 밤 8시 반 이후에는 수도원이 되어 버린다. 아무리 정직한 것 같고 사랑하는 것 같아도 영성이 없는 그 정직과 사랑은 그들 자신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을 해친다.

선함이 없는 지식은 시간이 지나면 악함으로 흐른다. 지식이 없는 선함은 너무 약하다. 신앙도 마찬가지이다. 절대 진리가 없는 정직은 위선에 가깝다. 그것은 모순적 행동을 낳는다.

II부. 로마가톨릭의 위기 - 국민일보의 기사 중심으로

1. 교황 방한을 보는 시각들

- ‘프란치스코 효과’로 개신교 위축 위기감 성찰 계기 삼되
가톨릭의 차이점 알려야

세계 가톨릭의 수장 프란치스코 교황이 8월 14일부터 18일까지 한국을 방문한다. 1984년과 89년, 요한 바오로 2세의 방한에 이어 역대 3번째인 교황 방한은 한국교회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안팎으로 위기에 처한 한국 개신교의 교세가 더욱 위축되고 위상도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반면에 이번 기회에 개신교와 가톨릭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거나 한국교회 자성과 갱신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일보는 가톨릭과 개신교의 역사와 교리·신학적 쟁점을 바탕으로 한국 개신교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짚어본다.

지난 4월 초 서울 강남의 한 호텔. 주요 교단장 몇 명이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눴다. 좀처럼 모이기 힘든 이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은 건 다름 아닌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 문제였다. A교단 총회장은 “30년 전에 교황이 서울에 왔을 때 교회가 얼마나 큰 타격을 입었는지 모른다. 교계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교단 총회장은 “맞는 얘기다. 하지만 그 많은 교단과 교계 지도자들을 어떻게 모아야 할지...”라며 말끝을 흐렸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을 바라보는 교계 지도자들의 마음은 대체로 불편하다. 이른바 ‘프란치스코 효과’가 국내에서도 재현돼 개신교가 더욱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다. 정인찬 백석대 신학대학장은

9일 “(교황의 방한은) 현재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기관의 부재를 드러내고 전도까지 가로막아 개신교 교세는 더 약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1990년대 이후 개신교 교세는 위축되고 가톨릭 교세는 확장돼 왔다. 2005년 통계청이 실시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개신교인은 861만여명으로 95년에 비해 15만명(1.7%) 가까이 감소했지만 가톨릭은 95년보다 219만여명(57.3%) 늘어난 514만여명으로 집계됐다. 늘어난 가톨릭 신자의 상당수가 개신교에서 옮겨간 것으로 추정된다. 개신교는 이후 연합기관의 분열과 교회 내부 분쟁 등으로 사회적 신뢰도마저 떨어졌다. 기독교윤리실천이 지난 2월 발표한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9.2%가 가톨릭을 가장 신뢰한다고 말했다. 개신교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불교(28.0%)에도 미치지 못하는 21.3%에 불과했다.

단순히 위기의식을 갖는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교황의 방한 자체에 반대하는 강경한 이들도 존재한다. 개신교가 가톨릭에 대해 안이하게 대처해 가톨릭의 교세확장을 가져왔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 로마가톨릭·교황정체알리기운동연대 조직위원장 송춘길 목사는 “겉모습은 비슷해 보여도 개신교와 가톨릭은 180도 다르며, 가톨릭은 단호하게 배척하고 경계해야 할 대상”이라고 못 박았다.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같은 뿌리를 갖고 있는 ‘형제교회’로 가톨릭을 바라보는 쪽도 있다. 주로 에큐메니컬(교회일치·연합) 측 교회들이다. 이들은 교황 방한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반종교·반기독교적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개신교와 가톨릭이 공통분모를 찾아 협력함으로써 공동의 선을 이룰 수 있다고 기대한다.

김동건 영남신학대 교수는 “과거 개신교와 가톨릭의 관계는 대립적이었지만, 교황 방한을 통해 미래를 향한 협력의 관계를 열어나가는 계기가 마련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협력과제로 기아 퇴치나 생명·평화·환경운동, 타종교에 대한 공동대처 등을 제시했다.

신학적 대화와 토론을 통해 가톨릭에 대한 무지를 깨고 개신교의 신학적 수준을 높이는 기회로 삼자는 의견도 나온다. 임성빈 장로회신학대 신학대학원장은 “그동안 목회자나 평신도들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가톨릭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다”면서 “교황 방한을 개신교와 가톨릭의 신학·교리적 차이에 대해 제대로 알고, 이해하는 기회로 삼자”고 제안했다.

교황 방한을 바라보는 교계의 시각은 이처럼 다양하지만 가톨릭과 개신교의 차이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한국교회가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김광열 총신대 교수는 “교황이 주는 교훈적 메시지와 별개로 우리가 지닌 성경적 복음의 순수성과 정체성, 가톨릭과의 차이점은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권 숭실대 교수는 “개신교가 고수하고 있는 성경적 진리를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면서 “하지만 교황 방한을 통해 가톨릭이 새로워지려는 노력에 대해서는 배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 가톨릭과 종교개혁

— ‘면죄부 판매’ 로마가톨릭 도덕적 타락...

루터, 개혁 열망 담아 1517년 반박문 발표



주요 종교개혁 사건들

1517	루터, 95개조 반박문 발표
1521	로마가톨릭, 루터를 이단으로 규정
1522	루터, 독일어 신약성경 출간
1523	프빙글리, 취리히에서 개혁운동 시작
1534	영국 헨리 8세, '성직자 임명법'·'수장령' 공포해 영국 교회를 로마가톨릭으로부터 분리
1536	칼뱅, '기독교강요' 출판, 개혁운동 참가
1555	아우크스부르크 잠정 협정
1562	프랑스 종교전쟁
1620	청교도 신대륙 이주
1640	청교도 혁명 시작

종교개혁은 로마가톨릭 교리 자체를 개혁한 신앙의 재발견이었다. 독일 베를린 돔교회 입구에 설치된 동판에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는 장면이 새겨져 있다.

역사가들은 유럽의 중세 1000년을 암흑기로 표현한다. 성직자들은 도덕적 타락의 길을 걸었고 권력을 이용해 부패를 일삼았다. 특히 10세기부터는 ‘로마가톨릭주의’의 폐해가 공공연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스위스의 가톨릭 신학자 한스 쾅은 이 시기를 “교황과 대립교황들 사이의 끊임없는 음모와 전쟁, 살인과 폭력의 시대였다”고 평했다. 당시엔 성직 매매와 세습이 만연해 로마가톨릭 내부에서도 개혁운동이 일어났다. 클루니 수도사들은 형식주의와 미신을 배격했고, 교황 그레고리 7세는 성직 매매와 세습을 막기 위해 11세기 후반 성직자 독신제도를 도입했다.

14세기부터 16세기 중엽까지는 가톨릭교의 부패가 극심했다. 십자군 전쟁이 막을 내리고 1309년 로마의 교황청이 프랑스 아비뇽으로 옮겨진 뒤 교황권은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후 두 명의 교황이 생겼고 서로 정통성을 따지다 세 명의 교황을 세우는 ‘대분열 시대’까지 겪었다.

암울한 역사 속에서도 개혁의 불빛은 명멸했다. ‘전(前) 종교개혁자’로 불리는 사람들이 등장한 것이다. 이들은 클루니 수도사들이나 교황에 의한 개혁과 달리 로마가톨릭 교리의 정정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종교 개혁의 선구자였다.

프랑스의 피에르 왈도는 십자군운동 당시 로마가톨릭의 부패를 비판했다. 그를 따르는 ‘왈도파’는 자체 신앙고백서를 갖고 있었다. 이들은 연옥설을 부인했고 7성례 중 세례와 성찬만 인정했다. 로마 가톨릭은 이들을 즉시 이단으로 내몰았다.

로마가톨릭의 7성례는 1215년 교황 이노센트 3세가 발표한 것으로 ‘영세 성체 건진 고해 혼배 신품 중유’를 뜻한다. 로마가톨릭은 성례전을 구원론의 일부로 본다. ‘천하무적 아르뱅주의’의 저자 신광은 목사는 “죄는 영혼의 질병이고, 은총은 영혼의 질병을 치료하는 약이고, 성례전은 은총을 담은 주사기와 같다”며 가톨릭의 구원론을 설명했다. 성례전은 사제를 통해서만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평신도는 철저히 사제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중세교회 교황 권력의 근간은 여기에 있었다.

가톨릭 신자들은 성례전에 많이 참여해 은총의 양을 축적해야 했다. 여기서 공덕을 쌓는 만큼 죄를 용서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공덕(공로)의 신학’이 나왔다. 그런데 공덕이 쌓이면 교황이나 교회가 그 공덕을 꺼내 쓸 수 있다고 해석해 이른바 ‘면죄부’를 만들어냈다. 교인들은 헌금을 내고 회개의 완성을 입증하는 증서인 ‘면죄부’를 구매했다.

영국의 존 위클리프는 1215년 라테란공의회가 선언했던 화체설(성찬식 때 먹는 빵과 포도주가 순간적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학설)이 성육신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기 시작했고, ‘롤라드’로 불린 추종자들은 성경 전체의 영어번역을 완성했다. 교황청은 죽은 지 40년 지난 위클리프의 유골을 파헤쳐 화형에 처했다.

얀 후스는 프라하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치면서 자국어로 설교하고 위클리프의 사상을 가르쳤다. 그는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회 건물이나 사제들이 교회의 대표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로마가톨릭은 이단이라며 화형에 처했는데, 그는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 시편을 낭송했다고 한다.

종교개혁은 1455년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를 이용한 혁신적인 인쇄술로 성경을 대량 인쇄하면서 중요한 동력을 확보했다.

부산장신대 탁지일 교수는 “사람들이 성서를 쉽게 접하면서 로마 가톨릭의 주장이 성서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개혁의 당위성을 수용했다”며 “개혁의 중심에는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이 있었다”고 말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 마르틴 루터는 면죄부 판매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등 95개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 못 박았다.

그는 참된 회개는 성례전이나 면죄부 같은 것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 삶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교회의 진정한 가치는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듬해에는 자신의 견해를 40개 항목으로 요약한 '십자가 신학'을 발표하고 로마가톨릭의 '영광의 신학'을 정면 비판했다. 이후 3차례 논쟁을 거쳐 이단으로 정죄 받고 보름스 칙령에 의해 간혀 지내면서 독일어로 신약성경을 번역했다.

그러나 '루터란'으로 불렸던 루터 지지자들은 독일과 북유럽, 미국 등 전 세계로 퍼졌다. 루터파 교회는 10여 년에 걸친 투쟁 끝에 1555년 아우크스부르크 제국의회에서 정식 종교로 인정받아 프로테스탄트교회를 탄생시켰다. 루터의 개혁은 이후 스위스의 울리히 츠빙글리와 장 칼뱅, 재세례파(아나뱃티스트) 운동, 스코틀랜드의 존 녹스, 영국의 종교개혁 등으로 이어지며 전 유럽으로 확대됐다. 이들은 130여년간 전쟁을 치르며 신앙의 자유를 얻었다.

개신교는 이후 경건주의와 공동체운동으로 발전했고 경건주의는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를 변화시켰다. 웨슬리는 18세기 종교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피난하는 독일의 복음주의자 공동체 '모라비안'과 함께 선교를 떠났다. 인간 중심이었던 계몽주의의 열풍 속에서도 복음의 진리를 고수했던 영국의 청교도들은 종교개혁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 미국으로 이주했다. 이들의 후예인 조너선 에드워즈는 18세기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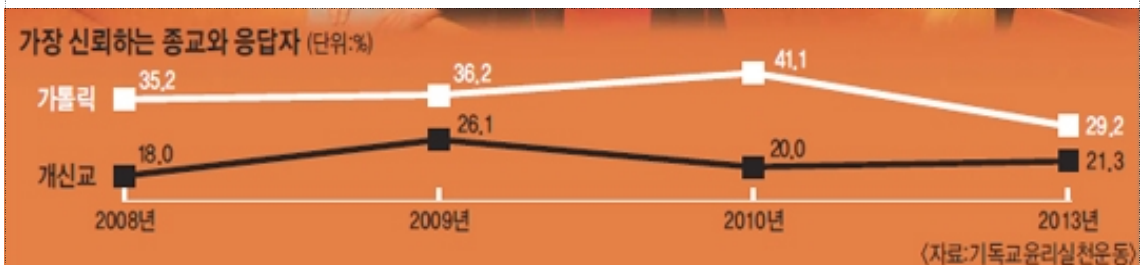
총신대 서창원(역사신학) 교수는 "한국교회는 로마가톨릭을 반면 교사로 삼아 교회의 외형과 규모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만으로 교회 다음을 나타내는 개혁교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3. 한국 개신교와 가톨릭

- 100년 늦은 개신교 1907년 교세 첫 추월 가톨릭,
1939년 조상 제사를 문화로 수용



개신교와 천주교 관계자들이 지난 1월 서울 목민교회에서 개최된 ‘그리스도인 일치기도회’에서 기도문을 낭독하고 있다



1885년 천주교 제7대 조선 대목구장인 블랑 주교는 불편한 심정으로 파리와방전교회에 보낼 편지를 써내려갔다. 당시 조선 천주교인의 수는 1만4039명이었다.

“우리가 위협받고 있는 또 다른 곤경은 프로테스탄트 목사들의 내한입니다. 이미 10여명 이상의 목사와 2~3명의 여전도사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는 100년 늦게 전래된 개신교가 순교를 경험한 천주교보다 활발하게 포교하는 데 대한 무거운 심정을 가감 없이 편지에 담았다.

“오류를 설교하는 이 신교(新敎) 목사들은 활보하고 다니는데, 반면 진리와 참된 자유의 설교자인 우리들은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처럼 숨어서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말하자면 손과 발이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개신교를 ‘열교’로 비하하며 견제=불량 주교의 불편한 심기는 천주교의 순교사와 직결돼 있다. 한국 천주교는 이승훈이 1784년 베이징에서 영세를 받으면서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조상제사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임금도 없고 아버도 없는 종교(無君無父)’라며 공격을 받았다.

“천주교는 다만 천(天)이 있는 줄만 알고 임금과 아버이가 있음을 모르며 천당과 지옥이 있다는 설로서 백성을 속이고 세상을 의혹케 함이 큰물이나 무서운 짐승의 해보다 더하다.”(1785년 유하원의 상소문)

이런 분위기에서 수많은 신자들이 억울하게 체포돼 투옥되거나 처형됐다. 조선 최초의 신부 김대건도 1846년 참수형을 당했다. 학계에선 조선후기 천주교인 1만여 명이 순교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천주교는 이처럼 한국에서 많은 희생을 치렀다. 반면 개화기에 입국한 개신교 선교사들은 천주교에 비해 자유롭고 개방적인 분위기 속에 선교를 시작했다. 개신교가 의료, 교육, 신분의 자유를 앞세워 단기간 급성장하자 조선에서 기득권을 갖고 있던 천주교는 조바심을 드러내며 개신교를 견제하기 시작했다.

이런 갈등관계는 신도 충돌 사건으로 표출됐다. 천주교인과 개신교 청년들이 맞붙은 명동성당 구타사건(1894년), 기사에 불만을 품은 천주교인들의 황성신문사 난입사건(1899년) 등이 대표적이다. 중요 선교지였던 황해도와 전라도에서도 재령군 향내동사건(1898년), 장연 사건(1901년), 고부 덕촌 충돌사건(1905년) 등 충돌이 잇따랐다.

갈등의 골은 교세가 역전되면서 더욱 깊어졌다. 1905년 천주교와 개신교 신자 수는 각각 6만4070명과 3만7407명이었으나 1907년엔 개신교가 7만 2968명으로 천주교(6만3340명)를 앞질렀다. 자신을 ‘성교(聖敎)’로, 개신교를 ‘열교(裂敎·분열하고 나간 종교)’라고 불렀던 천주교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개신교 비판서인 ‘신교지기원(新敎之起原, 1923년)’ 등을 제작해 내부단속에 나섰다.

◇사회복지, 민주화·인권운동으로 이미지 쇄신=천주교는 1939년을 기점으로 조상 제사를 전통문화로 수용했다. 이후 일제의 종교탄압에도 끊임없는 성장을 했는데 개신교처럼 박해나 순교 없이 타협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전쟁 후에도 개신교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꾸준한 성장을 기록했다. 인성회(현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를 출범시켜 사회복지 사업에 뛰어들었고, 70년대 민주화·인권운동, 80년대 쇄신운동, 90년대 성서번역운동을 통해 대내외적 정체성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인천가톨릭대 오경환 명예교수는 ‘가톨릭 신자의 괄목할 만한 증가와 그 요인’이라는 논문에서 천주교가 호감을 얻게 된 요인을 천주교회의 결속력, 청렴성, 정의·인권활동, 제사수용,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유연한 태도로 분류했다.

한국 천주교가 개신교에 대해 대립관계에서 벗어나 일부나마 화해 쪽으로 방향을 틀기 시작한 것은 1964년 제2차 바티칸공의회부터다. 당시 공의회에서는 “적지 않은 단체들이 가톨릭교회와 완전한 일치에서 갈라진 데에는 가톨릭 측의 탓도 있었음을 자인한다”고 선언하고 분열된 형제들을 포용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한국 천주교도

개신교와 대화에 나서 68년 성서공동번역위원회를 조직하고 77년 '공동번역성서'를 출간했다. 86년부터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한국정교회 등과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1월 18~25일)에 합동 기도회를 열고 있다.

NCCK는 지난 5월에는 천주교, 정교회 등과 연대해 '한국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를 창립했다.

◇'보수와 진보' 역할분담한 천주교=종교사회학자들은 기독교윤리 실천운동의 종교조사에서 볼 수 있듯 천주교의 높은 신뢰도의 근거에는 '진보'와 '청렴'이라는 외적 이미지가 직결돼 있다고 분석한다.

강인철 한신대 종교문화학과 교수는 "1990~2000년대를 거치면서 한국개신교의 사회적 이미지는 진보에서 보수로 대체됐다"면서 "대중의 집합적 기억에서 NCCK의 진보적 이미지가 지워지면서 이제는 그 공백에 '개신교=극우·보수'라는 새로운 이미지가 채워졌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천주교 역시 종교권력 구조가 보수로 역전됐지만 보수적인 정진석 염수정 추기경보다 진보적인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나 정의평화위원회가 여전히 사회적 이목을 끌며 사회적으로 진보적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천주교가 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한다는 이미지는 이렇게 형성되고 유지돼 온 것이다.

조성돈 실천신학대학원대 교수도 "개신교는 대형교회 목회자의 말 한마디로 심각한 타격을 입지만 천주교는 진보와 보수의 다양한 목소리를 보장하며 역할분담을 하고 있다"면서 "특히 교단을 움직이는 전략그룹이 대내외적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과거의 부정적 이미지를 벗는 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교황의 방한은 한국 종교시장에서 천주교의 긍정적 이미지를 극대화시키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4. 가톨릭 위기와 프란치스코

－ 사제 8000여명 性추문... 위기의 바티칸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집어넣으세요.”

로마가톨릭 교황청 관계자들이 “교회 위기도 없는데 왜 공의회를 소집하느냐”고 묻자 교황 요한 23세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는 1958년 교황에 선출된 지 석 달 만에 제2차 바티칸공의회(1962~1965년) 소집 계획을 발표했다. ‘인간의 얼굴을 한 교회, 가난하고 고통 받는 사람을 위한 교회, 사회 속에 존재하는 교회’가 목표였다. 종교개혁 400년, 로마가톨릭 전체를 뒤흔든 변화의 바람은 그렇게 불었다.

요한 23세는 77세에 교황이 됐다. 재임 기간은 4년 7개월. 그는 불시에 로마 빈민가를 방문해 경호원들을 괴롭히기 일쑤였고 주교들을 ‘나의 형제들’이라고 불렀다. 명령하기보다 충고를 들으려 했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 직전 위암 선고를 받고서도 회칙, ‘지상의 평화’를 발표하며 “교황의 첫 의무는 기도하고 고통 받는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 개최 1년 전부터 ‘기독교 일치 촉진 사무국’을 창설해 다른 교파들과의 화해를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당시 공의회 대표들의 46%가 서유럽과 북미 출신이었고 42%는 라틴아메리카와 아시아, 아프리카 출신이었다. 구성 자체가 20세기 세계 기독교 중심의 이동을 보여줬다. 주교들은 가난한 자들의 곤경을 실감하고 있었고 비기독교 세계와 대화하려 했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영향으로 한국 가톨릭교회도 김수환 추기경을 중심으로 변화와 쇄신을 단행하며 ‘세상 속의 교회’를 추구했다.

공의회를 통한 개혁시도는 이전에도 있었다. 종교개혁 이후 열렸던 트렌트공의회(1545~1563년)도 그중 하나였다. 하지만 당시 공의회는 개혁 대신 복고를 택했다. 성경과 교회전통, 칭의 성례전 연옥 면죄부 등에 관한 교리를 정리하면서 현대 가톨릭교회의 표본을 확정했다. 제1차 바티칸공의회(1869~1870년)는 불안한 세계 정서 속에서 교황의 무오류성만 확인했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 등장한 교황 요한바오로 2세는 부분적으로 가톨릭과 정교회, 개신교 사이의 분열을 해소하려 했다. 하지만 그는 사안에 따라 보수와 진보를 오갔기 때문에 가톨릭 내부에서도 비판을 받았다. 50만 명의 가톨릭 신자들이 여성 성직 임명을 지지하고 성직자 독신제도에 반대하는 청원서에 서명했지만 요한바오로 2세는 반대했다. 한스 쾅과 같은 가톨릭 신학자는 “21세기를 위해서는 새로운 요한 23세, 즉 요한 24세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일부 교황의 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톨릭의 영적·도덕적 권위는 추락을 거듭했다. 사제들의 잇따른 아동성추행과 부패 스캔들, 마피아 연루설 등이 터져 나오면서 가톨릭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2002년 미국 보스턴의 한 신부가 30년간 어린이 130명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난 게 기폭제가 됐다. 의혹 차원에서 제기됐던 사제들의 성추문이 세계 곳곳에서 폭로됐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7월 13일 이탈리아 신문 라 레푸블리카와 인터뷰에서 “가톨릭 성직자 8000여명(50명 중 1명꼴)이 아동 성추행에 연루된 소아성애자”라고 밝힐 정도로 문제는 심각했다. 하지만 교황청은 이 문제에 대해 그간 이렇다 할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바티칸은행 역시 자주 의혹의 표적이 됐다. 바티칸은행은 1942년 설립 이후 바티칸과 교황청의 재정을 담당했다. 하지만 자산운용

내용이 베일에 싸여 있어 돈세탁 등 각종 부패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다. 마피아와 오랜 기간 은밀한 거래를 했다는 소문도 끊이지 않았다.

2013년 3월 취임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주목받는 것은 소탈하고 겸손한 성격뿐 아니라 이 같은 문제들에 대한 단호하고도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7월 7일 영국, 독일, 아일랜드 등지에서 온 성추행 피해자 6명을 만나 “통곡하면서 참회한다”며 용서를 구했다. 지난 3월엔 아동 성추행 근절을 위한 대책 위원회도 발족시켰다. 지난 1월 바티칸은행을 감독해온 추기경 5명 중 4명을 경질했고 최근엔 은행장을 교체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개혁 노력이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차별화된 행보와 적극적인 개혁의지만으로도 전 세계 언론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2013년 12월 미국 워싱턴포스트와 ABC방송이 미국 성인 1,006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지지율은 92%에 달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지난해 프란치스코 교황을 ‘올해의 인물’에 선정했다. 타임이 교황을 ‘올해의 인물’로 선정한 것은 1994년 요한 바오로 2세 이후 19년 만이었다.

5. 루터로 돌아가자

— ‘오직 성경’ 종교개혁 初心 되찾을 기회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이 한국교회에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20명이 넘는 개신교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자성’ ‘갱신’ ‘말씀’ ‘배움’ ‘섬김’ 등의 키워드를 내놔다. 대부분은 교황 방한에 따른 교세 위축을 우려하면서도 개신교 공동체가 자성하며 새로워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개신교가 지닌 성경과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들어야 한다는 입장도 확고했다.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개신교계에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정신의 핵심인 ‘오직 성경’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다. 성경을 앞에 두고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깊은 울림을 준다

◇‘오직 성경으로’ 루터 정신 회복해야=16세기 초 면죄부를 팔던 가톨릭 신부는 이렇게 외치고 다녔다. “헌금이 상자 속에서 ‘찰랑’하고 소리를 내는 순간 죽은 자의 영혼은 연옥에서 뛰쳐나올 것입니다.” 무명의 신학자였던 마르틴 루터(1483~1546)가 ‘95개조 반박문’을 내걸고 로마가톨릭에 반기를 들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극에 달했던 가톨릭의 타락과 부패상 때문이었다.

루터가 주창한 개혁주의적 신앙관의 핵심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종교개혁 이후 50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오늘날 한국 개신교는 이를 제대로 계승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

정종성 백석대 교수는 7월 16일 “교권·금권·세 과시에 혈안인 오늘날 한국교회는 루터가 비판한 당시 교회의 모습을 답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지적은 교계 지도자의 고백으로도 이어진다. 한국 기독교장로회 총회장을 지낸 박원근(서울 이수교회) 원로목사는 자서전에서 복음이 뒷전으로 밀린 한국교회의 현실을 질타했다.

“40년 목회를 하면서 기괴한 현상을 발견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변화시켜 버린 것이다. (중략)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 ‘성공주의’ ‘성장주의’ ‘나’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

울 초 방한한 기독교 석학 레너드 스위트(미국 드루대) 교수는 성도들을 향해 “교회의 생명은 ‘오직 성경’에서 나오며, 구원은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 삶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어야 한다”고 루터 정신의 회복을 촉구했다.

한국칼빈주의연구원 정성구 원장은 “일부 목회자들은 가톨릭이 개신교의 ‘큰집’인 것처럼 말하지만, 성경의 본질과 초대 교부들의 신앙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프로테스탄트교회(개신교)가 본류”라며 “목회자와 성도들은 성경 말씀과 성령으로 바로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톨릭 제대로 파악해야=“목회자나 성도들이나 그저 막연하게 알고 있을 뿐입니다.” 가톨릭 신부였다가 개신교 목회자로 변신한 정모(62) 목사의 얘기다. 올해로 목사 안수를 받은 지 20년째인 그는 “개신교인 대부분이 가톨릭에 대해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면서 “신학·교리적인 차이뿐 아니라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 바뀌고 있는 가톨릭에 대해 연구하고 배울 점은 배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영성 등 개인의 신앙성장은 물론 가톨릭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도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1962년부터 65년까지 이뤄진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 바티칸은 ‘건물 안의 종교’에서 벗어나 교회 밖으로 활동 폭을 넓히는 등 점진적으로 내부 개혁·쇄신작업을 진행 중이다. 최근 아동 성추행과 부패 의혹으로 최악의 곤경에 처했지만 정면 대처함으로써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 하고 있다.

개신교와 가톨릭의 다른 점과 같은 점을 성도들에게 제대로 알려서 전도에 활용토록 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침례신학대 신학대학원장 이형원 교수는 “교황이 오면 개신교와 가톨릭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며 “제대로 답할 수 있으면 개신교 전도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학자들은 교황 방한을 계기로 섬김 등 교회 본연의 역할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고 권면했다.

케리그마신학연구원 김재진 원장은 “섬김의 본으로 주목받고 있는 교황의 모습은 교황 개인의 리더십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덕목”이라며 “성경 말씀에 대한 순종과 실천의 삶을 이어가자”고 말했다. 서창원 총신대 교수는 “각자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6. 신학자들이 보는 가톨릭과 개신교의 비교 요약

① 사도권 계승자가 교황 ... 성경에 없는 가르침

총신대 서창원 교수

한국 개신교회는 영적 침몰에 있다. 이에 환멸을 느낀 사람들이 교황 방한을 계기로 종교를 바꿀 가능성이 크다. 거짓된 복음을 가진 로마가톨릭이 사회적으로 쇼맨십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를 진실로 받아들이고, 종교의 핵심인 양 여기고 있다. 한국 개신교회가 충실하게 복음을 전했으면 끄떡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세상의 부와 영광을 추구하다보니 영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성장제일주의로 치달은 한국교회의 허상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가톨릭은 엄밀히 말해 교회라 말하기 어렵다. 교회의 사도권 계승자가 교황이라는 것은 명백히 성경에 없는 가르침이다. 교회 바깥에는 구원이 없다고 했는데 그 교회는 로마가톨릭이라고 주장했다. 순수한 교회라기보다 교황의 교회다. 개신교가 가톨릭을 공격할 이유는 없지만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이 갖는 허구성은 지적해야 한다.

개신교에는 교황과 같은 자리가 없다. 개신교회는 개교회주의를 극복하고 목사교회가 아닌 보편적 교회를 형성하며 교회연합에 충실해야 한다.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교회를 세워야 한다. 종교사업가를 양산하면 안 된다.

② 종교다원주의와 혼합주의 경계해야

한세대 신문철 교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봉사, 겸손의 메시지를 담은 교황의 방한은 세상에서의 교회의 역할과 의미를 묻는 한국사회에 하나의 답변을 줄 수 있다. 한국개신교회는 이를 계기로 그리스도의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진정으로 실천하는 교회로 나아가야 한다.

개신교와 로마가톨릭 사이에는 중대한 신학적, 교리적, 제도적 차이들이 있다. 겸손과 봉사를 강조해 온 교황의 가르침은 신·구교 간 신학적 대화에도 장차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한국 개신교회는 가톨릭이 걸어온 종교다원주의와 혼합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교황은 방한 기간에 한국의 순교자 124위에 대한 시복식을 집전한다. 순교를 무릎 꿇던 초기 한국교회 신앙의 뜨거움과 진실함을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다.

③ 종교개혁자 신앙적 가르침 계승해야

침신대 이형원 신대원장

교황의 선행들이 연일 보도되면 가톨릭교회에 입문하는 이들이 늘어날 것이다. 반면 가톨릭과 개신교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궁금해하는 이들도 나올 것이다. 전도할 때 이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다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교회사적 관점에서 개신교회와 가톨릭교회는 ‘형제교회’보다 여러 면에서 차이점이 있는 다른 신앙적 단체로 간주해온 면이 많다. 현대 가톨릭교회는 개신교회들과 화합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는 16~17세기 종교개혁자들의 몸짓과 신앙적 가르침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신학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은 개신교회 지도자들도 본받아야 한다. 그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보이며, 겸손하고 검소하며 소탈한 삶을 실천하고 있다. 교황이 올해 초 결단했던 10가지는 우리도 실천할 가치가 있다.

④ 일희일비 말고 보혈의 십자가 붙들어야

고신대 전광식 총장

교황 방한이 사회적으로 부각돼 가톨릭에 대한 관심이 다소 일어난다 해도 한국 개신교회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일희일비할 이유가 없다. 교회는 자기 자리에 서서 구원의 공동체로서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고, 거룩의 공동체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 치유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면 된다.

가톨릭은 기독교적 의상을 걸친 희랍주의요, 로마주의다. 그들은 복음을 헬라화 시켜 사변주의로 전락시켰고, 로마화 시켜 의식주의에 빠졌다. 너무 제도화돼 복음의 순수성은 물론 성경적 기본사상에서도 많은 부분 이탈했다. 사회적 봉사와 윤리성을 강조해도 그것이 복음의 본질은 아니다.

한국 개신교회에도 드러나지 않은 영적 지도자들, 말씀과 섬김으로 생을 불태우는 귀한 사역자들이 많다. 교황이 낮은 자를 섬기고 공의를 외친다 해도 옛날 공맹(孔孟)이나 작금의 달라이 라마와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기독교는 복음을 통한 구원의 선포, 사죄를 통한 영적 치유라는 본질적 메시지에 충실해야 한다. 지상에서 좀 착하게 사는 것보다 죄의 얼룩이 묻어도 보혈의 십자가를 붙들고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게 복음의 가르침이다.

⑤ 영적 리더십 공백 교황이 채울 가능성

장신대 임성빈 신대원장

사람들은 종교현상에 대해 비판적이면서도 영적 갈구에 대한 본성을 갖고 있다. 교황 방한으로 우리 사회의 반종교적, 반기독교적 분위기는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개신교가 그 혜택을 받을 가능성은 적다. 사람들은 개신교와 가톨릭을 명확히 구별한다. 가톨릭에 대한 이미지는 좋아질 가능성이 크지만 개신교는 영향을 받지 못할 것이다.

개신교에는 가톨릭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에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교황 방한을 계기로 종교개혁 이전 가톨릭의 모습, 현재 가톨릭의 교리 등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신학적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단 시비가 나올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가톨릭을 하나님의 나라의 지체로서 몸의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전제 하에 형제 교회라고도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사회는 정치와 종교계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리더십 부재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세월호 참사를 거치면서 영적 리더십에 대한 갈구가 심한 상태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문이 영적 리더십 공백을 채울 가능성이 있다.

⑥ 기독교 복음적·사회적 사명 고취시킬 것

감신대 이후정 신대원장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은 한국 개신교회에 긍정과 부정, 양면의 영향을 줄 것이다. 긍정적 면에서는 기독교의 복음적·사회적 사명을 고취하는 데, 영향을 줄 것이다. 부정적 면에서는 개신교에서 가톨릭으로 관심이 옮겨가고 성도들이 이동하는 추세에 영향을 더 줄 수 있다고 본다.

한국 개신교회는 가톨릭교회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교회라는 의식을 더욱 진작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교리와 실천의 차이 등에 대해 서로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며 존중하는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리더십에 대해 한국 개신교회는 영적·도덕적 기준에 따라 분별하고 본받을 수 있는 것은 본받아야 한다. 신학적 입장에서 교황직 내지는 가톨릭 교리에 대한 비판적 관점은 신중히 고려될 수 있다.

⑦ 가톨릭 부흥 원인 겸허히 검토해야

서울신대 권혁승 신대원장

취임 이후 프란치스코 교황의 긍정적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최초의 비유럽권 교황이라는 것 자체가 파격이었는데, 개혁가적 면모까지 보여주면서 권위적 요소를 과감히 벗겨내고 있다. 다음 달 방한에서도 그런 점이 더욱 부각될 것이다. 이는 가톨릭교회의 성장을 더욱 가속화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정부는 교황을 국빈으로 맞이하기 때문에 그 효과는 더욱 증대될 것이다.

한국 개신교회는 가톨릭교회의 성장을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무엇이 가톨릭교회의 부흥을 가져왔는지 겸허하게 검토해야 한다. 교황은 취임 초기부터 개혁가적 자세로 권위를 벗어던지는 파격적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그런 점이 세계로부터 긍정적 반응과 주목을 받게 하고 있다. 교황은 이번 방한 기간 더 많은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한국 개신교회도 이번 기회에 권위적 면모를 일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⑧ 가톨릭과 개신교는 주 안에서 한 형제

한신대 연규홍 신대원장

세계가 프란치스코 교황을 주목하고 그의 행보를 따라하고 있다. 이를 ‘프란치스코 효과’라 부르기도 한다. 반면 한국 개신교회는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다. 최근 교계 지도층 인사들의 망언은 개신교회를 더욱 추락하게 만들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은 여기에 속도를 더할 것이다.

지난날 가톨릭은 권위적·제왕적 성격을 갖고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교회 개혁을 외치며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전파하며 정의와 평화, 공동선을 지향하고 있다. 반면 한국 개신교는 여전히 교리 논쟁에 빠져 가톨릭을 이단시하고 있다. 교황 방한을 계기로 한국 개신교가 새롭게 변화되기 바란다. 한국 개신교는 교황의 방한을 적극 환영하고, 공식적으로 가톨릭이 주 안에서 한 형제요, 한 몸임을 고백해야 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리더십은 ‘십자가 사랑’이다. 이는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예수를 모시는 사랑이다. 나를 내려놓지 못하면 예수의 삶을 살아내기 어렵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기꺼이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지워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세상을 향해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Ⅲ부. 한국교회의 문제점

1. 한국교회 연합기관의 분열

① 부끄러운 분열의 현주소

－ 교단정치 싸움에 성도들 가슴 ‘피멍’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지난해 12월 26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제24-1차 임시총회에서 대표회장 연임을 허용하는 정관 개정안의 통과 여부를 놓고 총대들이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한국교회의 130년 역사상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은 없었다. 한국교회는 일제의 모진 박해와 6·25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예수 보혈'의 정체성을 지켜냈다. 그러나 2014년 한국교회는 세속주의와 물량주의, 교권주의에 빠져 분열을 거듭하며 정체성을 잃고 사회에서 조차 외면당하고 있다. 국민일보는 한국교회가 십자가 영성을 회복해 연합과 일치, 갱신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연중 특별기획 '한국교회, 위기를 넘어 희망으로' 시리즈를 연재한다.

한국교회가 "하나 되라"(요 17:21)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분열을 거듭하면서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정부나 일반 언론은 개신교를 노골적으로 홀대하고 안티 기독교 세력들은 이를 빌미로 정통 교회를 공격하느라 혈안이 돼 있다. 한국교회의 자정능력을 기대해온 현장 목회자와 성도들의 위기의식은 극에 달하고 있다.

◇끝없는 분열, 교회 위상추락 어디까지=지난 5월 초 청와대에서 열린 '종교계 지도자 초청 간담회'에는 김희중 천주교 대주교, 남궁성 원불교 교정원장, 한양원 민족종교협의회 회장, 박남수 천도교 교령 등 종교지도자 10명이 참석했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과 김삼환 명성교회 목사가 참여했다. 관례상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나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이 참석하는 자리이지만, 한국교회의 분열 때문에 '관례'를 따를 수 없었다고 한다.

한국교회의 위상추락은 지난 4월 부활절에도 그대로 드러났다. 주요 언론들은 부활절에 발맞춰 일제히 프란치스코 교황이 집전한 부활절 미사와 염수정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의 메시지를 소개했다. 반면 개신교는 몇몇 언론만 NCCK와 한국교회연합의 메시지를 간단하게 소개하는 데 그쳤다.

김은호 오륜교회 목사는 "올해 부활절 메시지에서 개신교의 목소리는 거의 없었다. 심지어 부활절 공영방송에서 천주교 대교구장과 조계종 총무원장, 평신도 지도자의 축하메시지만 받는 상황까지 왔다"면서 "단적인 예이지만 개신교가 한국사회에서 얼마나 위상이 추락했는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교회의 혼란과 분열상은 사이비 이단, 목회자납세 문제 등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한국찬송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로 바꾸는 등 76곡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재)한국찬송가공회는 손을 놓고 있다.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 정신을 훼손하며 2008년 설립된 (재)한국찬송가공회가 자기 조직을 지키기 위한 법적 싸움에 매달리느라 사이비 이단의 저작권 침해에는 신경 쓸 겨를이 없기 때문이다. 목회자납세

문제도 NCKK와 예장 통합 등이 긍정적 입장을 밝힌 가운데 예장 합동과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등은 결사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혼선에 혼선을 거듭했다.

오정호 미래목회포럼 이사장은 "지금 기독교의 위상이 말이 아니다. 한국교회는 영적 리더십 공백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사분오열된 한국교회에는 한기총 같은 정치집단의 대표자가 아닌 천주교의 추기경처럼 상징적인 인물이 나와야 한다. 새로운 리더십이 반드시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악 끼치는 연합기관 과감히 해체해야=한국교회의 부끄러운 분열상은 '개교회주의'라는 종교개혁 전통의 정신을 잘못 해석해 공교회성마저 상실한 데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높다. 이 때문에 개교회주의, 개교단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만든 연합기관이 교권주의자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했고, 이는 끝없는 분열과 파행을 낳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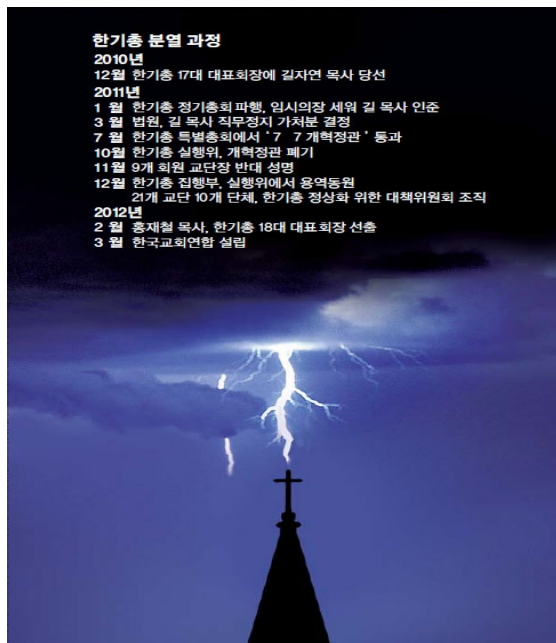
정재영 실천신대 교수는 "가톨릭의 중앙집권제와 비교되는 개신교의 개교회주의는 종교개혁 전통에 따르는 것으로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면서 "그러나 유독 한국교회는 개교회주의를 잘못 해석해 이기적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한국교회가 연합과 일치를 내팽개치고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을 거듭하면서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다양성 속 일치, 공교회에 대한 관심부족이 사회 신뢰도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손인용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명예회장은 "종교개혁 이후 우리 개혁신교회가 너무 많이 분열해 복음의 존귀한 가치마저 상실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그는 "종교개혁 당시는 분열의 명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지극히 개인적 관심과 욕망 때문에 주님의 교회를 찢어놓는 죄를 범하고 있다"면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등지는 등 한계상황에 도달한 만큼 한국교회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해악만 끼치는 단체는 과감하게 해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② 한기총, 어떻게 분열됐나

－ 교권욕·해묵은 갈등... 금권선거로 폭발



1989년 출범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는 상당 기간 동안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와 함께 한국교회의 대표적 연합기관으로 인정받았다. 두 단체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부활절연합예배를 공동으로 드릴 때는 한국교회의 일치와 연합에 대한 기대감도 높았다. 그러나 지금 한기총은 주요 교단들의 탈퇴 또는 행정보류로 대표성과 연합성을 모두 상실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한기총의 분열과 위상 추락의 분기점은 2011년 불거진 한기총 대표회장 금품선거 논란이었다. 그해 1월 열린 정기총회는 전임 대표회장 이광선 목사의 사회로 열렸지만 길자연 차기 대표회장 당선자의 불법 선거운동 논란으로 몸싸움과 고성이가 난무했다. 더 이상 회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이 목사는 정회를 선포하고 퇴장했다. 그러나 회의장에 남아 있던 한기총 공동회장과 명예회장 등이 임시의장을 세워 총회를 속개해 길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인준했다.

이 목사는 곧바로 양심선언을 통해 자신을 포함한 한기총 대표회장의 금품선거 관행을 폭로했고 길 목사 측이었던 이만신 목사도 이를 인정했다. 사실 한기총의 금품선거 관행은 고질적인 것이었다. 주요 교단의 총무를 지낸 A목사는 11일 “한기총의 돈 선거는 2003년쯤부터 시작됐다. 초창기엔 실행위원 1명당 10만 원 정도를 뿌렸는데 나중에 수백만 원까지 늘어났다”면서 “연말만 되면 보너스처럼 수백만 원의 돈이 실행위원들에게 전달됐는데 후보자가 많을수록 액수도 커졌고 브로커들도 활개를 쳤다”고 회고했다.

그러나 2011년 금품선거 폭로는 겉으로만 ‘함께 회개하자’는 모양새를 취했을 뿐이었다. 이면에는 대표회장 자리를 둘러싼 갈등이 있었고 이는 결국 사회법정의 소송으로 비화됐다.

길 목사 반대 측은 대표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그해 3월 28일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한기총은 대표회장 직무정지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다. 법원은 김용호 변호사를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

한기총 회원교단들은 사태 해결을 위해 7월 7일 특별총회를 열어 이른바 ‘7·7 개혁정관’을 통과시켰다. 길 목사의 대표회장 재인준과 1년 단임제, 교단별 후보 순번제 등이 새 정관의 골자였다. 길 목사 측과 반대 측의 의견을 모두 수렴한 정관이었기 때문에 한기총은 정상화의 길을 가는 것처럼 보였다. 길 목사도 8월 29일 대표회장에 복귀했다.

그러나 10월 28일 한기총 제22-2차 실행위는 개혁정관을 폐기했다. 예상 통합 등 20여 교단은 개혁정관의 복원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자 12월 ‘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지도부의 용퇴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2012년 1월 길 목사의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홍재철 목사가 대표회장에 단독 입후보하자 총회 불참을 선언했다. 홍 목사는 2월 한기총 대표회장에 선출됐고 대책위는 3월 한국교회연합을 설립했다.

한기총 분열과정에서 한국교회는 부끄러운 민낯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교계 언론은 물론 일반 언론에도 상세히 보도되면서 한국교회의 위상은 바닥으로 추락했다. 교회 정치의 적나라한 현실을 목격한 일반 성도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교회에 다닌다고 말하기조차 창피하다고 자조했다.

한기총 분열과정에서 한국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우선 일부 목회자들의 부와 권력, 명예에 대한 탐욕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은 개인적 욕심을 채우기 위해 공적인 자리를 탐냈고, 이를 차지하기 위해 금품을 뿌리고 모략을 꾸몄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같은 행태를 바로잡지 못하는 한국교회의 시스템과 의식수준이다. 경건한 분위기에서 민주적으로 진행돼야 할 총회나 실행위원회 등은 특하면 고성과 폭력이 난무하고 날치기로 진행됐다. 사회의 헌법이나 법률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하는 정관이나 세칙 등은 부실했을 뿐 아니라 그마저도 잘 지켜지지 않았다. 선거 때만 되면 스스럼없이 금품을 주고받았다. 교단에서 파송된 총대나 위원들은 공인의 신분임을 망각하고 알박한 이해관계에 따라 패거리를 짓고 교회정치를 좌지우지했다. 세상은 민주화되고 선진화됐는데 교회는 후진국형의 낡은 정치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박용규 총신대 교수는 “한기총의 분열과정은 한국교회의 연합과 갱신을 위한 반면교사와 같다”면서 “한국교회가 바로 서는 길은 여기에서 드러난 치부와 병폐들을 바로잡아 철저하게 개혁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③ 연합기관 재통합 왜 안 되나

－ 한기총 이단 영입에 재결합 ‘산 넘어 산’



통합에 관한 한기총-한교연의 시각차		
	한기총	한교연
이단 해제 문제	“전문가의 철저한 검증 통한 결정으로 문제될 사안 아니다.”	“주요교단 배제한 일방적 이단해제 인정할 수 없다.”
통합에 대한 입장	선통합 후논의	한기총의 이단해제 이전인 2011년 ‘7· 7정관’으로 복귀해 야
분열 책임 소재	“스스로 길러져 나온 한교연에 1차 책임”	“이단해제로 공존 불가능케 한 한기 총에 근본 책임”

2012년 3월 한국교회연합(한교연)의 설립으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는 분열됐다. 한국교회에는 이를 저지할 만한 지도력이 없었다. 분열 이후에도 재통합에 대한 요구가 거셌지만 한기총 지도부의 독주와 이단해제, 한교연의 대화거부로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 중 한기총의 이단 영입은 한국교회의 재통합을 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힌다.

◇한기총의 잇따른 이단 해제와 영입=1989년 한기총은 기독교연합사업, 이단사이비 대책 등을 목적으로 창립됐지만 2010년 이광선 대표회장 시절 이단 영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어긋나기 시작했다. 연합기관에 불과한 한기총이 교단들의 이단규정을 뒤엎고 면죄부를 주기 시작한 것이다.

한기총은 그해 12월 예장 통합, 합동, 고신, 합신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변승우 큰믿음교회 목사에 대해 ‘이단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예장 통합과 합신에서 각각 ‘재림주 의혹 예의주시’ ‘이단 요소가 있어 교류금지’로 규정한 예장 합동복음 장재형(크리스천 투데이 설립자)에 대해서도 ‘재림주 의혹에 대한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한기총의 이단해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2011년 2월 취임한 홍재철 대표회장은 그해 9월 예장 통합 등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류광수 다락방’을 영입한 예장 개혁측(조경삼 목사)에 회원자격을 줬다.

주요 교단의 반발은 거셌다. 그해 11월 예장 통합과 고신, 합신 이단 사이비대책위원장은 “한기총이 교단 협의체임에도 불구하고 각 교단에서 이단 사이비로 결의한 집단에 대해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 항의했다. 교계에선 “이단 해제를 명목으로 수십억 원의 금품이 오갔다”는 소문이 파다

했다. 그런데도 개선조짐이 없자 신학대 교수들이 들고 일어났다. 2012년 6월 총신대, 장신대, 서울신대 등 14개 신학대 교수 207명은 ‘한기총은 다락방 이단해제를 즉각 취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9월 열린 예장 통합 제97회 총회에서 이단사이비 대책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귀신론을 주장한 이단인) 김기동마저 한기총에 이단 해제를 요청했을 정도로 (이단들이) 이단 해제의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분위기”라고 개탄했다.

한기총은 교계의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면반격에 나섰다. 7월 신학대 교수 207명에 대해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이단연구위원 5명을 이단 옹호자로 규정했다. 10월에는 한교연을 이단옹호 연루 친이단 단체로, 예장 통합을 이단 연루 교단으로 규정했다. 2013년 6월에는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 협회장 진용식 목사와 신현옥 신천지대책전국연합 대표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예장 합동에 파직을 요청했다. 한기총의 이 같은 결정은 진 회장과 신 대표가 신천지 등과 법적 다툼을 벌일 때 이단 쪽 주장을 뒷받침 하는 소송자료로 활용됐다.

한기총의 이단 해제와 영입은 거침없이 계속됐다. 지난해 말 예장 통합에서 이단성이 있는 것으로 지목했던 김풍일(구 새빛등대중앙교회)씨를 가입시키고, 예장 합동 등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평강제일교회(구 대성교회) 박윤식씨에 대한 이단해제도 결의했다. 파장은 건잡을 수 없이 커졌다. 홍재철 목사의 소속 교단이자, 한기총과 한교연의 분열 뒤에도 한기총에 남아있던 예장 합동이 결국 한기총을 탈퇴했다.

◇재통합의 최대 걸림돌은 이단 문제=한기총과 한교연은 분열

이후 재통합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혀왔다. 그러나 이단 문제에 대한 두 단체의 접근법은 전혀 다르다. 한기총은 이단문제에 대해 떳떳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오히려 문제없는 교회나 목회자를 이단으로 규정한 교단들이 권력을 남용한 것이라고 반격해왔다. 이 때문에 한기총이 한교연과 재통합의 방법으로 제시한 ‘선통합 후논의’ 안에 대해서도 이단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많았다.

한교연은 재통합을 위해서는 2011년 제정됐다 폐기한 ‘7·7 개혁정관’을 복원하고 당시의 회원교단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 영입된 이단들을 회원교단으로 용납할 수 없다는 의미다.

교계에서는 주요 교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단해제를 밀어붙이고 연임을 강행하는 한기총 홍재철 대표회장의 독선과 독주도 통합의 걸림돌이라고 지목한다. 먼저 한기총을 탈퇴함으로써 분열에 직접적 계기를 제공한 한교연이 교계에서 확고한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심만섭 한국교회언론회 사무총장은 “한국교회가 정상적 연합기관 체제를 구축하지 못하는 결정적 이유는 한기총의 이단해제와 지도부의 전횡, 그리고 이를 견제하지 못하는 교회정치의 난맥상에 있다”고 말했다.

2. 교단과 노회의 분열

① 분열 또 분열

— 교단 수 252개... ‘예장’ 명칭만 200여곳



지난달 26일 경기도 부천 경서교회에서 열린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창립 준비 총회 모습. 이날 같은 지역에 위치한 제자공동체교회에서는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 소속 ‘토라연합교단’이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한국교회 부흥과 성장의 역사 이면에는 교단 분열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교단과 노회의 분열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견잡을 수 없이 가속화됐다. 사소한 대립이나 갈등도 종종 분열로 이어지고, 한 달에 하나꼴로 새로운 교단이 생겨나면서 '감투'만 늘어났다. 정체불명 신학불명의 교단들이 난립하면서 이단·사이비와 정통의 경계도 모호해졌다. 교단 분열의 부끄러운 현실과 원인을 살펴본다.

지난달 26일 오전 11시. 경기도 부천 경서교회에서 새로운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창립을 위한 준비 총회가 열렸다. 같은 시각, 옆 동네에 있는 부천 제자공동체교회에서는 ‘토라연합교단’ 창립총회가 개최됐다. 같은 날 같은 지역에서 교단 창립을 위한 행사 두 개가 동시에 열린 것이다. ‘분열과 성장’으로 요약되는 한국 교회사에 있어서 교단 분열은 현재 진행형이다.

◇‘예장’ 교단 200곳 넘고, 갈라진 ‘개혁’만 40여곳 = 지난 20년 동안 국내에서 유일하게 교단 주소록을 해마다 발간하는 교회연합신문의 ‘2014 교회연합주소록’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 설립된 교단은 총 252곳이다(그래프 참조).

중복 교단 등이 추려지고 본격적인 집계가 이뤄진 2001년의 128개에 비해 배 가까이 증가했다. 10년 전인 2004년 135개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후로는 한 달에 1개꼴로 새 교단이 창립됐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한국교회에는 현직 총회장만 252명이다. 부총회장과 총무, 서기, 회계 등 주요 임원을 합하면 1000명이 훌쩍 넘는다. 교단 분열이 ‘감투’만 늘린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들 교단 가운데 장로교로 통칭되는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명칭을 사용하는 곳만 204곳이다. 2001년 90개와 비교할 때 2.3배 급증한 것이다. 분열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예장 교단에서도 ‘개혁’을 기치로 내건 교단들은 연쇄분열을 일으켰다. ‘개혁국제’, ‘개혁복구’, ‘개혁정통’, ‘합동개혁’ 등 이른바 예장 개혁과 교단만 40개가 넘는다. ‘예장 개혁’의 경우 같은 이름을 쓰는 교단만 12개에 달하다 보니 ‘방배동 개혁’, ‘사당동 개혁’ 등 총회 사무실이 위치한 지명을 앞에 붙여서 구분할 정도다. 개혁 교단 소속 목회자들이나 구분할 수 있지, 일반 목회자나 성도들은 분별할 방법이 없다.

◇‘총회 신학교’도 난립=한국교회역사연구원 등에 따르면 1907년 한국교회 최초로 안수를 받은 목회자 7명을 시작으로 1990년까지 83년간 배출된 목회자는 대략 6만6000여명. 이에 반해 1991년부터 2010년까지 20년 동안에만 무려 7만5000명의 목회자가 배출됐다. ‘목회자 과잉과 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나올 정도로 많은 목회자들이 배출된 배경에는 신학교가 자리 잡고 있다.

교회연합신문에 따르면 지난 20년 동안 신학교가 200곳을 밀돈 적이 없다. 이 가운데 교육부 인가를 받은 신학교는 60곳 정도다.

김수진 한국교회역사연구원 원장은 “소속 목회자를 많이 배출하고 감투도 늘리기 위해서는 신학교가 필수”라며 “교단이 사라지지 않는 한 총회 신학교 역시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학교의 난립상도 교단 못지않다. ‘총회 신학교’ 명칭을 쓰는 학교만 26곳에 달한다. 서울 관악구, 동대문구, 송파구, 구로구, 강서구 등에 같은 이름의 신학교 간판이 걸려 있고, 영등포구 대림동(구 주소지 기준)에만 3곳이 있다. ‘총회신학연구원’ 명칭을 쓰는 신학교도 10곳이나 된다.

◇실체 불분명한 교단 수두룩=교단의 총회본부가 가장 많은 지역은 한국기독교교회관과 한국교회연합회관이 있는 서울 종로구다. 모두 20곳이 넘는 총회본부가 몰려 있다. 아파트나 빌라 등 가정집에 주소지를 둔 총회도 5곳이나 된다. 기존 교회에 주소지를 둔 총회는 10곳이 넘는다.

예장 합동의 한 인사는 “총회본부 주소지를 기존의 교회나 아파트, 가정집으로 둔 교단의 경우, 실제 교단인지 의심스럽다”면서 “정상적인

교단이 수행해야 하는 기능을 감안할 때 교단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실제 예장 K교단 총회본부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는 충남 계룡시의 한 아파트에 전화를 걸어봤다. 신분을 밝히지 않은 여성은 “K총회 본부는 맞다. 사정이 여의치 않아 총회장 사택을 주소지로 올렸다”고 말했다. 1996년도에 설립된 이 교단은 현재 10여 교회가 활동 중이며 총회장이 신학교 학장까지 맡고 있다.

이처럼 교단 및 신학교육기관이 분열하고 난립함으로써 목회자의 질이 떨어지고 연합기관의 통합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② 왜 분열되나

－ 교권욕·허술한 범망... 교단 난립 불렀다

“그거야 감투싸움 때문이지 뭐...”

교단들이 분열하는 이유에 대해 현직 총회장 A목사는 한마디로 이렇게 답했다. 그는 40곳이 넘는 예장 개혁 계열 교단 가운데 한 곳에서 교단 창립 때부터 20여년간 몸담아온 인물이다. 지금도 교단 정치의 한복판에 서 있는 그가 속내를 털어놓은 것이다.

◇교권욕과 교권주의=한국교회 교단 분열의 시발점은 1979년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예장 합동 교단의 일부 목회자들이 ‘정통 보수주의 신학을 사수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그해 2월 서울 방배동에 총회

신학교를 세우면서 이른바 ‘합동 비주류교단’이 태동했다. 이후 비주류 측은 ‘합동 개혁’ ‘합동 보수’ 등을 시작으로 세포 분열하듯 갈라지고 떨어져 나갔다. ‘정통신학 사수와 개혁’이라는 기치를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특정 세력의 독주와 이에 대한 반발 등 혼탁한 교단 정치가 분열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소속 교단의 분열과정을 지켜봤던 B목사는 “교단이 갈라진 결정적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들의 욕심, 즉 교권욕 때문”이라며 “내가 모든 교권을 차지해야 한다는 제왕적 사고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김수진 한국교회역사연구원 원장은 ‘한국장로교총회창립100년사’(홍성사)에서 “신사참배 논쟁으로 인한 고신의 분립(1952), 신학적 노선 차이로 인한 예장과 기장의 분열(1953), 세계교회협의회(WCC) 문제로 야기된 예장 통합과 합동의 분열(1959) 이후부터는 특별한 분열 쟁점이 없다”면서 “굳이 이유를 든다면 교권주의 때문”이라고 밝혔다. 교권을 장악한 인사나 세력이 인사와 재정을 주무르며 권력을 휘두른 폐해가 교단 분열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취약한 법·제도=현재 우리나라에는 교단설립에 있어서 법·제도상의 장치는 전무하다시피하다. 문화체육관광부 제2종무실 관계자는 “교단 설립은 신고나 인·허가 사안이 아니며, 정부에서 파악하는 바도 없다”고 말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종교단체 가운데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곳과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 형태를 갖춘 곳만 관리한다. 이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 교단이 몇 곳인지는 공식적으로 조사된 적이 없다. 신학교도 마찬가지다. 234곳인 신학교 중 교육부 인가를 받은 곳은 60여 곳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실제 운영 여부도 알기 어렵다.

교회연합기관의 한 관계자는 “지금 당장이라도 교단 하나 똑딱 만들 수 있다”면서 “정관 만들고, 임원 몇 명 세우고, 사무실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다”고 말했다.

◇교회연합기관이 분열·난립 방조=막 창립한 군소 교단들이 대부분 거치는 절차가 있다. 교회연합기관, 즉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나 한국교회연합(한교연) 등에 가입하는 것. 교회연합기관 관계자는 “성도들이나 외부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 연합기관에 가입했다고 홍보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혜택’도 있다. 법인 설립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연합기관의 이름을 빌리면 세금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회연합기관 입장에서든 군소교단을 많이 가입시키는 게 재정적으로는 이득이다. 가입비와 해마다 분담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기총과 한교연의 회원교단 현황을 보면 이 같은 실상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다. 한기총의 회원교단은 71개이지만 교육부 인가 신학교를 보유한 교단은 3개에 불과하다. 한교연도 35개 회원교단 가운데 11개 교단뿐이다(표 참조). 나머지 회원교단 중에 존재감이 거의 없는 교단들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연합기관들이 회원가입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한 교단의 분열과 난립에 제동을 걸기는 어렵다. 오히려 신학이나 윤리에 문제가 있거나 명분도 없이 분열해 나간 교단까지 마구잡이로 받아들이면 한국교회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온다.

◇노회 분열도 심각=자리와 기득권 싸움 등으로 갈라지는 건 교단 뿐만 아니다. 교단의 허리로 꼽히는 노회에서도 비일비재하다.

지난 4월 14일 서울 강북의 한 교회에서 열린 예장 합동 평양노회의 174회 정기회. 노회를 분립한다는 안건이 전격 통과됐다. 이에 따라 합동 교단에서 ‘평양’ 명칭을 쓰는 노회는 평양·동평양·서평양·남평양 등에 이어 모두 5개로 늘어나게 된다.

	한기총	한교연
가입교단	기하성 여의도, 예장개혁·중앙 그리스도의 교회협	예장통합·백석·대신·합신 개혁·한영·피어선, 기성, 예성, 나성, 기하성
교류교단		예장 고신, 기침, 기하성 여의도

(2014년 6월 18일 현재, 임원회 탈퇴 결정 기준)

지난 4월 중순 서울 강북의 한 교회에서 열린 예장 합동 평양노회 정기회에서 노회를 분립하는 안건이 논의되고 있다.

평양노회 소속의 한 장로는 “겉으로는 노회 화합을 위해 분립한다고 했지만 ‘같이 못살겠으니 갈라서자’고 합의한 것과 다르지 않다”며 “노회 소속 교회인 ‘동도교회’ 사태로 노회 구성원간에 깊어진 갈등이 폭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교단으로 꼽히는 C교단. 2007년 지방의 한 노회가 총대 파송 문제로 분열되는 파동을 겪었다. 노회에서 터줏대감 역할을 하던 D목사의 전횡이 심해지자 노회원들이 D목사의 총대권을 박탈하는 ‘반란’을 일으켰다. 그러자 D목사는 추종세력을 규합, 새 노회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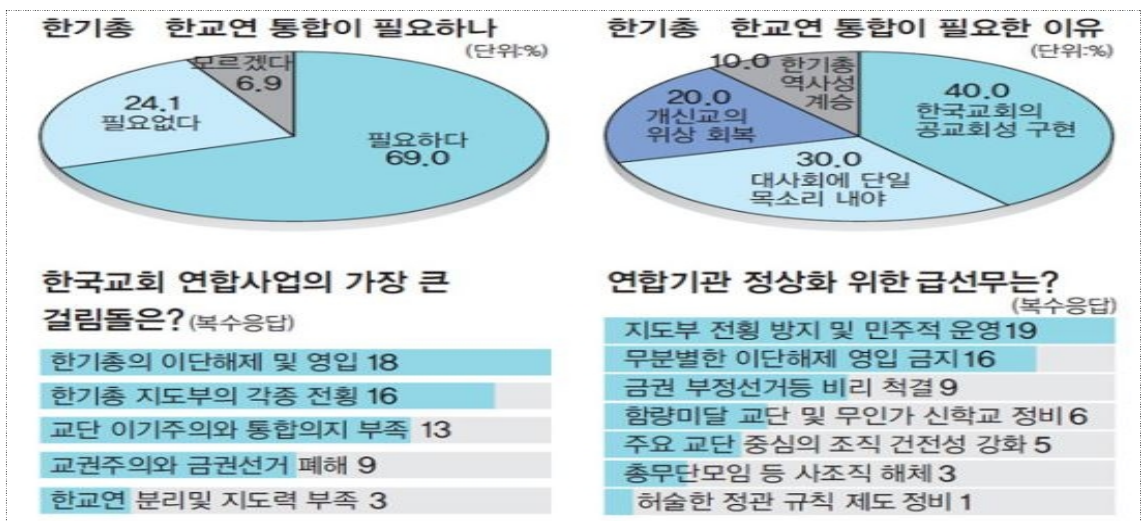
만들었다. C교단 관계자는 “양 노회의 힘겨루기로 교단 전체가 홍역을 치렀다”면서 “이 사건으로 지역 교회의 성장세가 꺾였다”고 안타까워했다.

3. 분열 극복과 통합의 길

① 연합기구 통합하려면

– “한기총·한교연 통합 필요하다” 69%

“최대 걸림돌은 지도부 전횡·이단 문제”



국민일보는 지난 6월 19일부터 24일까지 주요 교단과 단체의 사무총장과 총무, 대표 등 교계 인사 30명을 대상으로 한국교회가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 한국교회연합(한교연) 등과 관련 있는 15개 주요 교단, 다양한 영역에서 사역하는 15개 단체의 인사들을 조사 대상으로 했다. 이들 중 29명이 답변을 보내왔으며, 대부분은 한국교회의 진정한 연합을 위한 고언도 함께 전해왔다.

한기총과 한교연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가운데 69%인 20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없다’고 답변한 이가 7명, ‘모르겠다’며 답변을 유보한 이는 2명이었다.

‘필요하다’고 대답한 이들 가운데 40%(8명)는 ‘한국교회의 공교회성 구현’을 이유로 꼽았다. ‘사회적으로 단일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밝힌 이가 6명, ‘타 종교에 비해 실추된 개신교의 위상을 회복해야 한다’고 답한 이가 4명이었다. 2명은 ‘한기총의 역사성을 계승해야 한다’를 이유로 들었다. 한국장로회총연합회 최내화 총무는 “정통성을 갖는 연합기관이 한국교회를 리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필요없다’고 답한 7명은 모두 ‘진정한 회개와 갱신 없이 통합하면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조제호 사무처장은 “교단에서 개교회도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연합기관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자리다툼하는 연합기관을 만들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대한기독교나사렛성결회 최기섭 총무는 “한기총은 이미 잘못된 길로 갔기 때문에 한교연이 만들어졌다”면서 “다시 합칠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국교회 연합사업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나(복수응답)’는 질문에는 가장 많은 30.5%(18명)가 ‘한기총의 이단해제 및 영입’을 꼽았다. 공교단에서 이단 또는 이단성이 있다고 결의한 단체와 인물에 대해 한기총이 일방적으로 이단에서 해제하거나 문제없다고 결정함으로써 연합기관의 파행을 가져왔다는 인식이 가장 많은 셈이다. 세계성시화 운동본부 김철영 사무총장은 “한국교회의 연합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무분별한 이단해제”라면서 “연합기관은 공교단의 이단 결의를 존중하고 자체적인 이단해제를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7.1%(16명)가 ‘한기총 지도부의 연임 위한 정관 개정 등 전횡’을 걸림돌로 꼽았다. 한기총은 지난해 12월 총회에서 대표회장의 임기를 ‘2년 단임’에서 ‘2년 연임’으로 개정해 교계 안팎에서 큰 논란을 불러왔다.

한국기독교학회 박영환 총무는 “교권주의와 패거리문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횡을 일삼는 이들, 도무지 물러서지 못하는 일부 교계 지도자들을 보면서 절망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13명이 ‘주요 교단들의 이기주의와 통합의지의 부족’을 걸림돌로 꼽았다. 연합기관의 분열에 대한 책임이 교계에서 지도력을 발휘해야 할 주요 교단들에도 있다는 의미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 성회(서대문) 총무 이삼용 목사는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대형교단들이 정치적 기득권을 포기하고, 한국교회 전체를 생각하는 배려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교권주의와 금권선거의 폐해’가 걸림돌이라고 답변한 이가 9명, ‘한교연의 분리와 지도력의 부족’을 지적한 이도 3명 있었다.

연합기관의 정상화를 위한 급선무에 대해서는 ‘지도부의 전횡·독단 방지, 민주적 의사결정, 회원교단과 소통 강화’를 꼽은 이가 32.2%(19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27.1%(16명)가 ‘이단에 대한 공동 대처, 무분별한 이단 해제 및 영입 금지’를 꼽았다.

이밖에 ‘금권·부정선거와 인사·재정비리 척결, 투명한 재정운영’(9명), ‘함량 미달 교단 및 무인가 신학교 정비’(6명), ‘주요 교단 중심으로 조직 건전성 강화’(5명)가 뒤를 이었다. 소수의견으로는 ‘총무단

모임 등 사조직 해체'라고 답한 이가 3명, '허술한 정관·규칙·제도 등 정비'를 꼽은 이가 1명 있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김진호 총무는 “기득권을 포기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 되며, 무엇보다 교권과 금권이 힘을 쓰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문에 응하신 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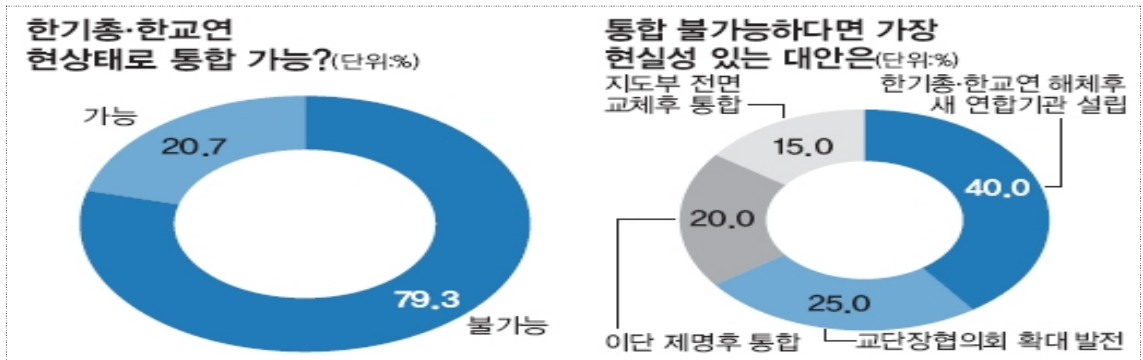
◇교단/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 엄만동 총무,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김진호 총무, 기독교한국루터회 김철환 총회장, 기독교한국침례회 서용오 행정국장,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서대문) 이삼용 총무, 기하성 여의도순복음 엄진용 총무, 대한기독교나사렛성결회 최기섭 총무,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구자우 사무총장, 예장대신 홍호수 총무,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조일구 총무, 예장개혁총연 표스테반 총무, 예장통합 이홍정 사무총장, 예장합동 황규철 총무, 예장합신 박혁 총무(이상 14개 교단)

◇단체/국가조찬기도회 정균양 사무총장,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조제호 사무처장, 미래목회포럼 이효상 사무총장, 세계성시화운동본부 김철영 사무총장, 전국기독교수연합 이병원 회장, 한국장로교총연합회 김명일 사무총장, 한국장로회총연합회 최내화 총무, 한국복음주의협의회 김명혁 대표회장, 한국교회언론회 심만섭 사무국장, 한국기독교직장 선교연합회 주대준 대표회장, 한국기독교학회 박영환 총무, 한국세계 선교협의회 한정국 사무총장, 한국교회희망봉사단 최희범 총무, 한국 신학대학총장협의회 유석성 회장,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이상화 사무총장(이상 15개 단체)

② 다양한 통합안들

– “연합기관 통합 현 체제론 불가능” 79%

“한기총·한교연 해체후 새 관 짜라” 40%



국민일보는 19~24일 실시한 주요 교단·단체 인사 29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연합기관의 정상화 방안 의견을 취합했다. 정상화의 걸림돌로 지목됐던 지도부의 전횡과 무분별한 이단 해제 문제는 여기서도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들 문제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 한국교회연합(한교연)이 현 지도부와 회원교단을 그대로 두고 통합이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중 79.3%인 23명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일부 이단 내지 이단 의심 단체가 회원으로 가입된 상태에서는 통합이 불가하다는 강경한 입장과 현 지도부에 대한 극도의 불신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통합이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모두 20명이 답했다. 이 중 가장 많은 8명이 한기총과 한교연을 모두 해체하고 건전한 교단을 중심으로 새로운 연합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단장협의회를 확대·발전시켜 기존 연합기관을 대체하자는 의견이 5명, 이단 교회 및 교단을 제명한 후 통합을 추진하자는 답변이 4명이었다. 기존 연합기관의 지도부를 전면 교체한 후 통합을 추진하자는 의견은 3명이었다.

기독교한국침례회 서용오 행정국장은 “한기총과 한교연, 두 기관의 기득권 싸움 때문에 통합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진정한 통합을 위해서는 새 판을 짜는 게 더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 성회(여의도순복음) 엄진용 총무도 “어쩌면 기존 세력의 변화는 어려울 수 있다”면서 “교단 중심으로 건전성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 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설문조사 문항과 별개로 주요 교단 및 그 교단장들이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이들이 많았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 김철영 사무총장은 “현직 교단장들이 의사결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고, 한국장로교총연합회 김명일 사무총장은 “예장 합동과 통합 등 큰 교단이 책임감을 갖고 연합사업에 참여하면 제반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조제호 사무처장도 “교육부 인가를 받은 신학교를 보유한 교단들을 중심으로 교단장협의회를 구성하고, 합의제로 의사결정을 하면서 상설조직으로 만든 뒤 주요한 사안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통합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적절한 통합방식을 묻는 질문에는 모두 18명이 응답했다. 과반인 61.1%(11명)가 선택한 방안은 ‘통합을 위한 추진기구를 설립해 통합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었다. 소수의견

으로는 ‘서두르지 말고 장기적으로 통합을 추진하자’는 의견이 3명, ‘제3의 연합기관 설립 후 한기총과 한교연을 흡수통합하자’와 ‘한기총으로 무조건 통합하자’는 의견이 각각 2명의 지지를 받았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 김명혁 대표회장은 “현재 한기총 지도부를 완전히 해체하고 한교연을 확대·발전시킨 후 한국교회의 전체적인 연합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이를 위해 각 교단의 존경받는 지도자들로 구성된 ‘한국교회연합준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연 표스데반 총무는 “한교연을 해체하고 한기총으로 복귀해야 하며, 연합기관은 중소교단의 활동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응답자들은 한교연과 한기총의 통합이나 연합기관 정상화에 앞서 교계 지도자들의 회개와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교회언론회 심만섭 사무국장은 “지도자들이 봉사와 섬김보다 명예와 권력에 더 신경 써선 안 된다”면서 “개인의 욕심보다 한국교회 전체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신학대학총장협의회 유석성 회장은 “예수 십자가 정신으로 돌아가 정의와 평화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장 합동 황규철 총무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국가조찬기도회 정균양 사무국장은 “지도자들이 마음을 비우고 한국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 비장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철영 사무총장은 한국교회의 리더십 교체를 주문했다. 그는 “연합기관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한국교회가 신뢰하고 존경하는 젊은 지도자들로 리더십을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③ 액션플랜이 필요하다

－ 분열·파행의 연합기관 정상화 주요 교단 가을 총회서 결론내야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공동 주최로 서울 시청 앞에서 열린 2009년 부활절 연합예배 장면.

한국교회연합기관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일보는 지난 6월 11일부터 연중기획의 첫 순서로 한국교회의 분열상을 심층 보도해 왔다. 독자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이메일과 전화 등으로 새로운 내용을 제보하거나 구체적인 의견을 전해온 이들이 많았다. 이들은 대부분 현재와 같은 분열과 대립을 방치하면 한국교회가 더욱 심각한 위기상황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돌파구를 만들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하반기 주요 교단 총회에 앞서 책임 있는 인사들이 머리와 가슴을 맞대고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전한 교단 중심의 연합체 나와야=부산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김태영(부산 백양로교회) 목사는 이메일을 통해 한국교회 연합 기관의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부 인가 신학교를 둔 교단들을 중심으로 연합체를 구성하는 안이다.

김 목사는 26일 “새로운 교회연합기관을 구성하려면 가입 기준을 강화해 건전한 교단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면서 몇 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이단 시비가 없는 교단, 교단 소속 신학교가 교육부의 인·허가를 얻은 교단, 법인 및 유지재단이 조직된 교단, 교단 고유의 총회헌법이 있는 교단 등이다.

이 경우 군소교단의 소외 문제가 불거질 수 있지만 신학적 차이가 크지 않은데도 분열된 교단들의 통합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

주요 교단들이 참여하는 ‘교단장협의회’를 한국교회 대표 연합기관으로 삼는 방안도 유력한 대안 중 하나다. 연합기관 대표 선출을 둘러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신학위원장 지형은(성락성결교회) 목사는 지난 24일 열린 한목협 전국수련회에서 “교회연합기구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선거”라면서 “이미 선출된 각 교단 임원들을 중심으로 교단장협의회를 구성하면 선거 횟수가 줄고(금권·부정선거 등) 부작용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예장합동 총회장을 역임한 장차남 목사는 “정규 4년제 신학교를 보유한 교단 20여곳을 중심으로 교단장협의회를 운영한다면 교계 전체를 포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문제는 교단장들의 임기가 1년이라 흐름이 자주 끊긴다는 것”이라면서 “이를 막기 위해 부총회장이나 직전 총회장, 총무를 참여시켜 사업의 연속성을 모색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교단장 중에서 공동회장을 맡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처럼 3~4년 임기의 선출직 총무나 사무총장을 두고 조직을 운영하자는 이야기다.

반면 여전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의 회복을 기대하는 이들은 한기총이 이단이나 이단성 있는 단체들과 결별하는 것을 전제로 한기총으로 다시 통합하는 방안을 지지했다. 그러나 현재의 한기총 체제에서 이것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의문을 표했다.

◇주요 교단 정기총회가 분기점=주요 교계 인사들은 올 여름이 연합기관 정상화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라고 입을 모았다. 오는 9~10월 주요 교단들의 정기총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정기총회에서 주요 사안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올 하반기 정기총회에서 돌과 구를 마련하지 못하면 또다시 1년을 기다려야 한다.

올해는 특히 한기총 회원교단이지만 임원회에서 탈퇴를 결정한 예장 합동과 고신 교단이 정기총회에서 탈퇴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와 함께 연합기관 정상화를 위한 방안들도 현의될 가능성이 높다.

기독교대한 하나님의성회(여의도순복음)는 오는 10월까지 한기총과 한교연이 통합하지 못하면 한기총을 탈퇴한다고 천명한 상태다. 따라서 올 여름 연합기관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서 정기총회에서 결의를 이끌어내는 게 최선이다. 이게 어렵다면 차선으로 총회에서 임원회에 전권을 위임토록 결의하는 게 필요하다.

◇건전 교단 육성, 신학교육 정상화=미래목회포럼 이사장 오정호(대전 새로남교회) 목사는 “(신학생들에게) 개교회와 개교단의 이익을 앞세우거나 명분주의에 빠져 분열을 조장하는 행동에 대응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면서 “신학생 때부터 소속 교단과 타 교단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처럼 군소 교단과 무인가 신학교가 난립하는 상황에서는 이를 기대하기 힘들다.

한국교회의 끝없는 분열과 위상추락의 근저에는 군소교단 및 무인가 신학교의 난립과 무자격 목회자 양산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이 문제를 도외시한 채로는 한국교회의 갱신과 회복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문제해결의 기본이 되는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돼 있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개신교 교단들과 신학교육기관의 정확한 숫자는 아무도 모른다.

한 교계 언론사 관계자는 “교단 난립을 방지하고 건전한 교단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통계부터 파악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와 자치단체, 교계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지적했다.

IV부. 위기를 넘어 희망의 길을 찾자.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다양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나 근본적인 부분만을 생각한다면 다음과 같이 논할 수 있을 것이다.

- ① 신학적인 문제다. 성과 속의 이분법적인 신학과 기복주의적인 신학이 말씀에서 벗어난 신학교의 난립으로 이어졌다. 신학교가 정규 4년제 교육부가 인정하는 대학보다 4배 정도가 많다. 그리고 너무 많은 신학교에 자격 미달의 사람들의 다수가 졸업을 하고, 목회자가 된다.
- ② 많은 목회자들의 꿈이 대형교회 지향의 목회를 생각한다. 공동체성이 결여된 개교회중심의 목회를 하기 때문에 함께 하나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 ③ 보수주의적인 교단들은 더욱 더 분열이 되어 교단의 난립이 또한 문제가 된다. 신학적 지식의 부족함과 신비적인 말씀에서 떠나간 목회자들도 그 숫자만 많을 수밖에 없다.
- ④ 선교에 대한 잘못된 이해도 문제가 된다. 인간구원과 함께 사회 책임이 조화와 균형을 이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구원에 대한 부분은 보수교단일수록 뒷전으로 하고 있다. 편협적이고 경쟁적인 교단간의 관계도 문제가 된다.
- ⑤ 다양한 신학과 다양한 교단을 하나로 묶는 협의체가 없고 분열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다양성 속의 일치를 찾아야 하는 것이 과제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개신교의 문제점도 있으나 분명한 구원관과 다양한 계층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기장 총회에서는 사회참여나 역사의식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위해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감리교도 소외된 이웃들과 가난하고 병든 이웃의 벼으로 열심을 내고 있다. 또한 순복음, 성결, 침례, 합동 교파는 성령운동과 복음전파로 세계선교에 앞장을 서고 있다. 장로교 통합 같은 경우는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민족 복음화와 남북통일, 세계선교에 매진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다.

가톨릭의 문제들은 해결해야 할 많은 과오들을 안고 있다.

- ①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며 타종교와 교류도 확대하고 있다.

- ② 제사제도를 문화로 수용하는 비성경적인 문제들이 산적해있다.
- ③ 성경만을 오직 하나님의 권위로 인정하는 개신교와 달리 가톨릭은 교회 전통을 성경의 권위와 같은 수준으로 해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권위와 교황을 말을 같은 선상에 놓고 있다.
- ④ 가톨릭은 제사를 미사로 보고, 미사와 성례를 통해서 죄가 사해지고 ‘고해성사’를 통해서 지은 죄를 사제가 용서해줄 수 있다고 믿는다.
- ⑤ 교황무오설은 사도 베드로의 사도권을 계승한 ‘하나님의 대리자’로 교황을 인정하고 있다. 인간인 교황을 신격화 시키고 중앙집권적 조직체계를 통해서 통제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은 많은 문제를 야기시킨다. 그로 인하여 수많은 실수와 최악의 온상이 되고 있다.
- ⑥ 인간 마리아를 중보자로 여기며, 마리아를 숭배하는 사상은 개신교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 ⑦ 연옥설 교리는 성경에도 없는 비성경적인 교리이며 십계명 가운데 제2계명을 삭제해버렸다.

“제이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 ⑧ 2014년 7월 13일 이탈리아 신문 라 레푸블리카와 프란치스코 교황의 인터뷰에서 “가톨릭 성직자 8,000여명(50명 중 1명꼴)이 아동 성추행에 연루된 소아성애자”라고 말해서 시끄럽기도 하다.
- ⑨ 바티칸 은행은 돈 세탁, 각종 부패, 마피아와 은밀한 교류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바티칸 은행을 관리 감독하는 5명의 추기경 가운데 4명이 경질되고, 최근에는 바티칸 은행장이 경질되었다. 이같이 많은 현재의 문제들이 쌓여 있다. 또한 유럽의 성당들은 관광지로 변하고 있고 명목상의 신자들이 대부분이다.
- ⑩ 중세시대 자행한 수많은 전쟁. 특히 275년 동안 계속된 십자군 전쟁은 지구를 피의 구렁텅이로 만들었고 천동설을 따르는 교황은 지동설을 주장한 갈릴레오를 이단으로 몰아서 화형에 처했다. 그밖에도 죽은 지 40년이 지난 위클리프의 유골을 파헤쳐서 화형에 처했다. 수많은 잘못된 일들을 열거할 수도 있을 뿐이다.

이처럼, 개신교와 가톨릭이 불완전한 것은 사실이다. 서로의 교권을 인정하되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많은 부분이 존재한다. 교리를 떠나서 보편적인 차원은 서로 공유해야 한다. 가난한 자의 벗이 되고, 고통 당하는 자의 이웃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인! 사랑을 나누는 사람으로!" (막10:45)

"Christians, people who share love"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더 낮은데 처해서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것이 참 교회의 모습이다. 교황 방한을 계기로 구교와 신교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갱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위기를 넘어 희망으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막 10:45)

초판 : 2014년 8월 14일

발행인 : 김만배 목사

편집자 : 황요한 전도사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106-6번지 주사랑교회

홈페이지 : <http://www.jsc12.net>